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燦 亨

韓國 TV 드라마의 性格 扮裝에 관한 研究

A Study of TV Drama and its Character Make-up in Korea

2 0 0 1 年 6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 專攻

金 奉 千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燦 亨

韓國 TV 드라마의 性格 扮裝에 관한 研究

A Study of TV Drama and its Character Make-up in Korea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 0 0 1 年 6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 藝術學 科

扮裝 藝術學 專攻

金 奉 千

金奉千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 0 0 1 年 6 月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抄錄

드라마는 인간의 다채로운 삶을 극적인 갈등으로 표현한 극본에 따라 연기자들이 말과 행동으로 표출해내는 극예술이다. 그러므로 드라마의 예술성과 그 극적인 생명력은 연기자의 개성 있는 연기를 통해서 구현된다. 이런 드라마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20세기 드라마의 주요 영역을 감당해온 TV 드라마도 시청자들은 연기자들의 높은 연기력에 매료되어 일희일비하며 극적인 감동을 맛볼 수 있었다.

일반 드라마처럼 TV 드라마도 연기자의 연기 능력만으로 그 극적인 감동을 최상의 상태로 표현해 낼 수는 없다. 드라마를 이끌어 가는 무대·사건·인물·배경 등 여러 구성 요소의 조화와 세트·의상·분장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을 때 연기자의 연기력은 최상의 예술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TV 드라마에 있어서 성격 분장(Character Make-up)은 등장 인물, 즉 배역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TV 드라마에서는 연기력만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시대 상황이나 인물의 개성을 분장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등장 인물들의 분장을 담당한 전문 분장사들은 인물들이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성격 분장을 통해 연기자의 연기력을 증대시켜주게 된다.

우리 나라 TV 드라마는 1960년대 초기에 TV 방송이 개설되어 무대 공연 드라마를 카메라에 담아 수상기로 생중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무대 공연이 TV 드라마화의 길을 개척한 TV 드라마의

역사와 함께 TV 드라마의 성격 분장의 역사도 시작되게 되었다.

초기 TV 드라마 성격 분장은 분장 전문인이 따로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연기자가 직접 자신의 분장을 맡아서 하였기 때문에 그 분장 수준은 초보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기로 오면서 점차 몇몇 선구적인 분장 전문인이 등장하고, 또 TV 보급의 확대에 의하여 TV 드라마가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자 TV 드라마의 분장도 독립된 장르로 발전할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병행하여 사회적으로는 대중들도 분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갔고, 기술적으로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분장인력이 증가됨으로써 TV 드라마의 성격 분장 또한 전문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분장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도 국내에서는 분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이 많지 않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2년제의 대경대학을 비롯하여, 동국대학교·중앙대학교 등 극소수 4년제 대학교의 연극 및 영화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의 분장예술학 전공 과정, 방송아카데미의 분장 전공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 교육 기관과 더불어 실기 중심의 교육을 사설 교육 기관인 학원에서도 감당하고 있어, 숫자상으로는 많은 전문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교육 기관에서 수학한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분장 전문 인력의 외형적인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장 교육 및 인력 배출 시스템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분장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체계적 교육 자

체도 문제이지만, 동양인의 안면 구조에 맞지 않는 구미인 중심의 분장을 하는 유학파들의 분장에 대한 기본적 인식 차이도 분장 현장에서는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다. 구미의 외국인의 기준에 의거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들은 우리 TV 드라마의 본질과 속성, 특히 한국인의 안면 구조 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전 조정 작업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 구미에서 교육을 받고 온 소위 해외파 분장 전문가들은 이미 습득한 구미의 분장 이론과 실기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 위에 우리의 신체 구조와 문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장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성격 분장은 영상 관련 매체 및 촬영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기술이 점차 발전하였다. 여기에는 드라마 분장에 대한 사회 인식의 증대, 드라마 제작진의 성격 분장의 역할 중시 등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드라마의 분장은 극중 연기자의 성격 분장이란 전통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TV 광고, 정치인 홍보 등의 분장으로까지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전개와 전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얻어진 성과를 그 큰 흐름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TV 드라마의 성격 분장 개념과 종류, 분장 관련 분야를 살펴 보았다. 이런 토대 위에서 TV 드라마와 성격 분장의 역사와 그 시대별 현황들을 밝히기 위하여 드라마와 그 제작 시스템, TV 드라마의

유형과 제작 과정, 배역의 연출과 분장, 성격 분장의 과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역사적 변모를 흑백 TV 시대와 컬러 TV 시대로 나누어서 각각의 시대에 보여준 성격 분장의 특징을 방송 환경을 비교해서 고찰하였다.

또,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사례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TV 드라마 제작과, 이 속에서 중요 기능을 감당하는 성격 분장의 제작 시스템을 연관하여 검토해보았다. 특히, 각각의 연기자에 따른 드라마에서의 성격 살리기에 분장이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성격분장에 대한 제작자 및 시청자들의 인식과 태도 문제까지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성격 분장사들의 분장이 얻어낼 수 있는 드라마 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향수자의 측면에 자리한 시청자들에 실질적인 반응으로 접근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설문지를 통한 자료 조사와 그 자료에 의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발전 방향에서는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제작 환경 개선, 매체 발전에 따른 분장 재료 및 기법의 개발, 전문가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 21세기를 맞은 우리 문화는 산업사회 시대로의 본격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TV 드라마 제작진에서도 사이버 문화 시대, 디지털 TV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TV 드라마 시대로서의 환경 조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는 드라마의 다양화와 전문화는 물론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발달 및 쌍방향 소통 구조의 확산에 따라 TV 드라

마 성격 분장도 본격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변화에 좀더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대비하고, 학문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섬세하고 감성적인 한국적 분장의 기술 개발은 연구사적으로 보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격 분장, 특히 TV 드라마의 성격 분장에 사용될 재료의 다변화, 분장 기법의 다양한 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세밀한 부분까지 화면에 포착되고 쌍방향 소통 시스템에 부합하는 분장 기술의 연구 개발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통한 다양한 분장 전문 인력 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目 次

초 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3. 연구 방향.....	5
II.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이해와 변천.....	6
1.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이해.....	6
1) 분장의 개념과 관련 분야.....	6
(1) 분장의 개념과 종류.....	6
(2) 분장 관련 분야.....	15
2) TV 드라마와 성격 분장.....	18
(1) 드라마와 제작 시스템.....	18
(2) TV 드라마의 유형과 제작 과정.....	20
(3) 배역의 연출과 분장.....	23
(4) 성격 분장의 과정.....	25
2.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변천.....	29

1) TV 드라마의 역사.....	29
(1) TV 드라마의 변천.....	29
(2) TV 드라마의 내용.....	31
2) 흑백 TV 시대의 성격 분장.....	33
(1) 방송 환경과 드라마 제작.....	33
(2) 흑백 TV 시대의 성격 분장과 특성.....	37
3) 컬러 TV 시대의 성격 분장.....	42
(1) 방송 환경과 드라마 제작 현황.....	42
(2) 컬러 TV 시대의 성격 분장 현황과 특성.....	45
III.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사례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53
1. TV 드라마 제작과 성격 분장.....	53
1) 드라마 제작 및 성격 분장 시스템.....	53
2)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사례.....	56
(1) 배역을 통해 본 성격 분장.....	56
(2) 연기자별 드라마 성격 분장.....	66
3) 캐릭터 분장에 대한 제작자 및 시청자들의 인식과 태도.....	72
(1) 설문 조사 개요.....	72
(2) 설문 조사 내용 및 결과.....	73
2.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발전 방향.....	87

1)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제작 환경 개선.....	87
2) 매체 발전에 따른 분장 재료 및 기법의 개발.....	89
3) 전문가의 육성 방안.....	91
IV. 결론.....	93
참고문헌.....	95
ABSTRACT.....	99
부 록	104

표 목차

표 1. 영상 매체 분장의 분야.....	10
표 2. TV 시청률 상위 10개 프로그램(1997. 10. 27 ~ 11. 2).....	19
표 3. 한국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시대적 구분.....	31
표 4. TV 드라마 내용의 시대별 변천 경향.....	33
표 5. 흑백 TV 시대의 주요 드라마.....	36
표 6. 컬러 TV 시대의 방송사별 주요 드라마 현황.....	44
표 7. TV 드라마 제작 관련 부서의 업무 관계.....	55
표 8. 설문 응답자 분포.....	72
표 9. 드라마 제작진과 시청자의 TV 드라마 성격 분장 평가.....	85
도표 1. 분장이 배역 성격 표출에 도움된다.....	74
도표 2. 현재 우리 나라 TV 드라마 분장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74
도표 3. 우리 나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사의 자질이 뛰어나다.....	76
도표 4. 현재의 분장이 계획적이다.....	76
도표 5. 분장사는 배역을 이해하고 분장한다.....	77
도표 6. 분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한다.....	77
도표 7. 상대와 분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78
도표 8. 분장은 분장사에게 전임시켜야 한다.....	78
도표 9. 분장이 연기자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80
도표 10. 분장은 배역 성격에 충실해야 한다.....	80
도표 11. 현재 분장 시간이 충분하다.....	81
도표 12. 분장 발전에 드라마 사전 제작이 필요하다.....	81

사진 목차

사진 1. 가부키.....	8
사진 2. 경극.....	8
사진 3. 바디 페인팅.....	8
사진 4. 캐츠.....	8
사진 5. 오즈의 마법사.....	8
사진 6. 치매 노인(SBS 「곰탕」)	11
사진 7. 상처 분장(MBC).....	11
사진 8. 동상 분장(MBC 「까레이스키」)	11
사진 9. 애꾸눈 분장(MBC 「까레이스키」)	11
사진 10. 바보 분장(MBC).....	11
사진 11. 도사 분장(MBC 「대도전」)	11
사진 12. 시대 분장(SBS 「임궏정」)	13
사진 13. 성격 분장	13
사진 14. 데드마스크 분장	13
사진 15. SF 분장.....	13
사진 16. 노역 분장 과정 (MBC 「까레이스키」)	16
사진 17. 두개골 전면 구조.....	16
사진 18. 안면 근육 구조.....	16
사진 19. 야외 촬영 중 스탭진 회의 장면(SBS 「코리아게이트」).....	22
사진 20. 야외 촬영 현장	23
사진 21. 세트 촬영 현장	23

사진 22. MBC 특집극 「까레이스키」의 시놉시스.....	25
사진 23. MBC 특집극 「까레이스키」 인물 구성도.....	26
사진 24. SBS 특집극 「대망」의 시영 역 분장계획서	27
사진 25. MBC 드라마 「장희빈」의 제작 현장(1971년)	35
사진 26. MBC TV 수사극 「수사반장」(1971)	40
사진 27 MBC TV 연속극 「장희빈」(1971).....	40
사진 28. MBC 「아리랑아」(1977).....	40
사진 29. MBC TV 「홍부전」	41
사진 30. 드라마 「아버지」(1971)	41
사진 31. 기본 캐릭터	41
사진 32. 노역 분장(1972년, 「새엄마」	41
사진 33. MBC 「집념」의 머슴 역.....	42
사진 34. 「미소」(MBC, 1979).....	42
사진 35. 드라마 「전원일기」	45
사진 36. SBS 드라마 「모래시계」((1995)	45
사진 37. SBS 드라마 「임궏정」(1995)	45
사진 38.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1991)	45
사진 39. 라텍스 이용 노역 분장	50
사진 40. 다텍스 이용 노역 분장	50
사진 41. 올드 스킨 플라스토 이용 노역 분장	50
사진 42. 글라찬을 이용한 반 대머리 분장.....	51
사진 43. SBS 특집극 「3김 시대」 문익환 목사 역의 분장 과정	51
사진 44. MBC 베스트극장 「환상 속으로의 여행」(1993)	52
사진 45. 일본 분장사의 자료 사진	52

사진 46. MBC 「타국」의 일본인 분장	52
사진 47, 48, 49 변학도로 분한 연기자	57
사진 50. 대원군 초상	59
사진 51. 52, 53, 54 대원군으로 분한 연기자.....	57
사진 55. 김구 실제 사진.....	61
사진 56, 57, 58, 59 김구로 분한 연기자.....	61
사진 60 박정희 실제 사진.....	63
사진 61, 62, 63, 64 박정희로 분한 연기자.....	63
사진 65, 66 MBC 8.15특집극 「낙동강」에서의 여인(고두심 분, 1993).....	64
사진 67 SBS드라마 「덕이」에서의 최달중(조형기 분, 2000).....	64
사진 68, 69 MBC8.15 특집 「춘사 나운규」(이덕화 분, 1991)	65
사진 70 MBC 「까레이스키」 김희애 분	65
사진 71, 72, 73, 74, 75, 76, 77, 78, 79 최불암의 성격 분장.....	67
사진 80, 81, 82, 83, 84 박근형의 성격 분장	69
사진 85 전봉준의 초상	70
사진 86, 87, 89, 89 유인촌의 성격분장.....	70
사진 90. MBC 「여명의 눈동자」	71
사진 91. SBS 「승부사」	71
사진 92. SBS 「코리아게이트」	89
사진 93. MBC 「까레이스키」	8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드라마는 인간의 다채로운 삶을 극적인 갈등으로 표현한 극본에 따라 연기자들이 말과 행동으로 표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드라마의 예술성과 그 극적인 생명력은 연기자의 개성 있는 연기를 통해서 구현된다.

이런 드라마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20세기 드라마의 주요 영역을 감당해온 TV 드라마도 시청자들은 연기자들의 높은 연기력에 매료되어 일희일비하는 속에 극적인 감동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격 분장은 연기자의 연기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닌 독립적 연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초기에는 연기자가 갖추어야 할 부수적 기능 정도로 여겼던 분장이 이제는 완전한 독립 영역으로 자리 매김할 뿐만 아니라 인기 직업으로까지 부상되기에 이르렀다. 80년대 초까지는 전무했던 분장 전문 교육 기관이 90년대 들어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현재는 많은 전문 인력이 배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은 실기 경력이 짧고 교육 과정에 있어서 충실한 학문적 연구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상업적 수단의 단기 기능 교육에 의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분장 전문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연구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분장에 관한 연구논문은 40년 TV 드라마 역사에 비해서 TV 드라마 분장의 역사에 관한 논문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TV 드라마 분장에 대한 연구사의 결여는 이 분야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며, 이 연구의 연구사적 의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TV 드라마 분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의 길을 여는 선구적 작업으로서, TV 드라마 분장의 역사 및 분장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문제들과 그 현안 해결을 위한 학문적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TV 드라마 분장에 이론과 현실 적용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이 연구는 우리 나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 현실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특히, 21세기로 막 들어선 이 시기는 멀티미디어 시대요, 정보산업 시대로의 본격적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디지털 TV 시대에 적절한 TV 드라마 환경 변화와 함께 TV 드라마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성격 분장의 이론과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시대 추세에 맞는 TV 드라마의 성격 분장은 보다 섬세하고 감성적이며 한국적 분장의 기술 개발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성격 분장의 재료 다변화와 분장 기법의 다양한 기술 개발 방식을 가능하게 할 연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특히, 세밀한 부분까지 화면에 포착되고 쌍방향 소통 시스템에 부합하는 분장 기술이 연구되고 개발을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분장 발달사적 추세에 따라 TV 드라마 분장에 대한 학문 자료 부재와 열악한 환경 개선의 참고 자료가 되고, 나아가서는 21세기의 한국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기술 발전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논문의 중심 단어인 분장은 모든 공연물, 즉 무대·영화·TV 등에 출연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연기자 및 출연자들이 극본이 요구하는 성격을 관객인 시청자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성격 분장을 의미한다. 이는 아나운서·엠씨(M.C)·앵커(News Caster)·리포터·대담 프로 출연자 등이 용모를 아름답게 표현하거나 피부를 최상의 상태로 나타내고, 조명의 강렬한 광선으로부터 반사를 막아주는 목적으로 하는 일반 분장과 다르다.

우리 나라 TV 드라마 분장의 역사는 짧다. 1960년대 초 TV 방송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고, 무대 연극이 카메라에 담겨 수상기로 생중계되면서 분장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TV 드라마 분장의 효시는 무대 분장이었다. 당시 분장 전문인이 따로 있지 않아 연기자가 직접 분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분장의 수준은 전문인의 분장보다는 미흡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연기자의 겸업으로부터 출발한 TV 드라마 성격 분장은 드라마가 다양화되고 활발해지면서 점차 독립된 장르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청자들의 시청 수준의 향상에 따라 극중의 내용만이 아니라 주요 등장 인물의 성격을 극적 대사나 행동 및 분장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이해의 방향을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시청자들의 드라마 감상 수준의 향상은 시청자들의 드라마 애호와 병행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진에서도 자연 성격을 개성 있게 드러내기 위한 전문화된 분장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의 내용은 첫째 우리 나라 TV 드라마의 발전 과정에서 분장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둘째 TV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성격 분장의 사례를 분석하고, 셋째 드라마 제작자 및 시청자의 성격 분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모든 공연물의 배역 성격을 보완, 강화하는 성격 분장 중 장르를 TV 드라마로 제한했다. 그리고 TV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적 요소가 있는 연극·뮤지컬·오페라·영화나 TV 드라마 영역 중의 하나인 코미디 분야의 분장은 제외했다. 그 이유는 TV 드라마 성격 분장을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이 그 심도를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장르의 특성과 성격 분장의 차이 비교를 통해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특징을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했다.

TV 드라마 성격 분장과 불가분 관계인 TV 드라마의 제작 현실 및 방송 환경 변화도 연구 범위로 정했다. TV 드라마의 내용과 유형은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극본이 완성되기 전에 촬영이 들어가는가 하면 시사성이 없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찍는 모순들이 잠복되어 있는 것이 드라마 제작 현실이다. 이 같은 방송 환경과 TV 드라마 제작 현실은 성격 분장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TV 드라마 성격 분장을 연구함에 있어 먼저 우리 나라 TV 드라마 및 성격 분장의 시대적 구분을 흑백 TV 시대와 컬러 TV 시대로 나누었다. 그리고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시대별 개성을 작품 내적인 측면 및 종합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드라마 제작 현황과 특성을 더불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시 활동하던 연기자 및 분장사와 관련된 문헌 자료 및 면담 자료 등에 의한 실태조사까지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까지 연구의 시각을 넓혔다. 특히 드라마 방송사에 크게 족적을 남긴 작품성이 높은 드라마 작품들과 작품성을 특출하지 않더라도 당시의 시대 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반향을 크게 얻었던 드라마 작품들은 그 대표적 성격 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의 방향

이 연구는 한국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분장의 개념과 종류를 개괄하고, TV 드라마와 성격 분장의 관계·제작 과정·제작 실태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흑백 TV 시대·컬러 TV 시대를 거치면서 TV 드라마 성격 분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방송 환경과 드라마 제작 실태를 알아보고, TV 드라마 성격 분장 관련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료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각 시대별로 드라마 제작 시스템과 제작 편수·관련 연기 및 성격 분장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고, 매체 변화에 따른 성격 분장의 재료·기법 변화와 시대 상황 및 배역들의 성격 분장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강한 성격의 배역들인 변학도·대원균·김구·박정희 등과, 다양한 개성을 연출했던 연기자들인 최불암·유인촌·박근형을 대표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몇몇 경우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실태 및 변화 과정의 제반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출가·연기자·분장사 등 TV 드라마 제작 관련 전문가들과 시청자들의 성격 분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한다. 이를 통해 TV 드라마 제작 책임자들과 TV 드라마 시청자들간의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대한 인식 및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나라 TV 드라마 분장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영상 매체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시대와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성격 분장의 대처 방안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개념과 변천

1.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이해

1) 분장의 개념과 관련 분야

(1) 분장의 개념과 종류

분장((扮裝)은 한자로는 이음절이 각각 ‘나눌’ ‘분(扮)’과 ‘갖출’ ‘장(裝)’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다. 또 영어로는 ‘make’와 ‘up’의 합성어인 ‘Make-up’으로 표기된다. 이는 “서로 나누어진 것을 만든다는. 또는 이루어진다”의 의미나, “나누어진 것을 알맞게 채겨 완전히 갖추도록 한다”¹⁾는 뜻으로 해석된다.

흔히, “드라마에서는 희곡에서 묘사된 인물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 배역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의상을 입히고, 특수한 화장을 하고, 도구를 지니게 하고, 신발을 신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배우의 연기를 돕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²⁾

“이처럼 분장은 배우의 가장 필수적인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그 목적은 배우의 모습을 정확하게 배역에 맞게 인물화 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필요한 성격적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배역의 성격 창조에 목표가 있다.”³⁾ 즉 “자연인으로서의 배우를 극중 인물의 민족·시대·연도·성격·건강 상태·사회적

1)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1999, P.8.

2) 대세계백과사전 16. 예능, 태극출판사, 1975, P261.

3) 박승배, 한국의 무대 공연에 나타난 분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5

환경 등에 맞게 시각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배우가 창출해내려는 극중 인물화의 외적인 면을 관객에게 전달시키는 중요한 극적 요소이다.”⁴⁾

“분장의 기원은 미적인 성적 본능의 만족 수단, 주술적·종교적 욕구의 충족 수단, 성별·사회적 지위·소속 집단의 표시 수단, 신체의 보호 또는 보존을 위한 실용적 수단”⁵⁾ 등의 학설로 정리되고 있다. 원시적 분장은 기원전 3200년경의 이집트 벽화와 유물 등에서 백납을 이용하여 얼굴을 착색하고 검은색과 파란색의 아이 새도(eye-shadow)를 사용한 것처럼 원시 사회의 종교 의식에서 주술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면이나 채색을 이용한 것이었다.

연극 무대가 노천에서 실내로 옮겨지면서 공연 분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분장은 어두운 실내를 밝히기 위해 쓰여진 조명이 배우의 얼굴을 창백하게,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얼굴에 혈색을 부여하고 입체감을 주는 정도였다. 이후 분장은 르네상스 시대 무대 예술이 다양화되면서 더욱 발전되어 귀족의 보호 아래 대규모 전문 극단이 출현하였던 영국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에는 극장·무대장치·대본·의상 및 소도구 등 배우들의 시각적 요소가 대단히 중요시되었다.

19세기에는 여장 남자 배우가 등장하는 일본의 ‘가부키(歌舞伎)’⁶⁾와 분장한 얼굴 색채 등으로 성격을 표현하는 중국의 ‘경극(京劇)’⁷⁾이 서양에 소개되었다. 또, 조명은 촛불과 석유에서 가스와 전기로 대체되면서 분장 또한 더욱 밝아진 무대 조명에 적절히 어울려 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

4) 아성, 무대미술입문, 그루, 1983, P167

5)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담게, 1998, P.15.

6) 가부키는 17세기에 생겨났으며, 극적인 장면과 동작이 많고 의상은 정교하며 화려하다. 가부키는 관중 가까이에서 연기를 하기 위한 통로(하나미 치)를 포함해 무대 장치가 복잡하다.

7) 베이징(北京)에서 발전하였다 하여 경극이라고 하며, 서피(西皮)·이황(二黃) 2가지의 곡조를 기초로 하므로 피황희(皮黃戲)라고도 한다. 14세기부터 널리 성행했던 중국 전통가극인 곤곡(崑曲)의 요소가 가미되어 만들어졌다.



사진 1. 가부키



사진 2. 경극



사진 3. 바디 페인팅

로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20세기에는 미래주의자들이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행위예술’이 등장하여 바디 페인팅 같은 특이한 분장술이 나타났다. 오늘날은 무대 예술의 다양한 분화와 영상매체 및 분장용품의 발달에 따라 분장술 또한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현대 무용은 고대 이집트인이나 아시아인 분장 같은 색다른 분장술로 공연의 질을 한층 높였다. 특히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중세 음유시인의 공연·보드빌(Vaudeville)·뮤지컬 코미디·발라드 오페라 등 각 공연에 어울리는 독특한 분장, 「캣츠」에서의 고양이 분장과 「오즈의 마법사」에서의 사자 분장 등으로 분장 예술의 새 장을 열었다.



사진 4. 「캣츠」의 한 장면



사진 5. 「오즈의 마법사」

우리 나라에서의 본격적인 분장은 외국으로부터 신극이 유입되던 근대전환기에 시작되었다. 전통적 소리극[唱劇]을 대표하는 판소리가 맨 무대로서의 야외 마당에서 연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천막을 친 가설극장으로, 또는 전문연극용 극장으로 세워진 원각사 같은 실내 극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연기자들의 분장이 요구되게 되었다. 즉, 이러한 초기의 소박한 분장은 여성의 경우에는 화장을 질게 한 모습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서구적 모습의 미남자로 분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것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분장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에 불과했다.⁸⁾

우리 나라에서 분장이란 낱말이 쓰여진 것은 영화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1950~60년대 초부터이고, 70년대 초반 이후 텔레비전 문화의 발달과 대중화로 분장은 일반인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분장의 종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기능에 따라 광의와 협의, 표현 방법에 따라 '일반 분장'과 '성격 분장', 안료·기법에 따라 '평면 분장'과 '입체 분장', 연출 공간에 따라 '무대 분장'과 '영상 분장', 성격에 따라 '일반 분장'과 '특수 분장'으로 각각 나누어진다.

연극 등의 무대 예술에서 극적인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대 분장으로서는 배우와 관객간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관객이 배우의 모습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이도록 콧대를 세우거나 눈썹을 진하게 하는 등 과장되게 분장해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다.

무대 분장은 극의 종류에 따라 다시 연극·오페라·뮤지컬·성극·마당놀이·무용·이벤트 등의 분장으로 나뉜다. 연극 분장이나 오페라 분장은 사실적 표현 기법으로 처리되며, 고전 무용 분장이나 드라마틱 발레 분장은 사실적이면서도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화사하게 형상하고, 현대 무용 분장은 개성

8) 강대영, 앞의 책, PP.11~12.

있는 분장 연출로 다양하게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 분장은 무대 분장처럼 무대와 떨어져 있는 관객을 상대로 하는 분장이 아니라 렌즈를 상대로 하는 분장이다. 그런데 영상은 필름 감응에 비상하고 색에 민감한 렌즈를 거쳐 화면에 투영되기 때문에 세밀한 분장이 요구된다.

영상 분장에서 중요한 것은 연기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이한 성격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의 이해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HD-TV 같은 고화질 화면의 TV 발달과 카메라의 고급화, 조명 기지재 및 발전된 촬영술에 의하여 연기자 얼굴의 미세한 결점까지 명확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분장은 보다 정확하고 섬세해야 한다.⁹⁾

표 1. 영상 분장의 분야

분야		분장 대상
TV	교양 프로그램	해설자, 대담자, 아나운서
	다큐멘터리	실존인물, 역사 인물
	쇼, 오락 프로그램	가수, 진행자, 출연자
	드라마	고전(사극), 시대극, 현대극, 특집극 등의 연기자
영화	영화	현대극, 시대극, 괴기극, 코메디극 등의 배우
CF	광고	제품, 기업홍보, 공공기관의 캠페인 출연자

영상 분장은 멋이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작품 속에 설정된 각 인물들의 직업·연령·시대적 배경들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노인이나 실업자·전과자·흑인·백인, 또는 상처·바보·괴기·유령·도사 등의 배역 인물들간에 이질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 인물의 개성을 살려 독자

9) 김종학과의 인터뷰, 2001. 2.

적 개성을 더욱 분명히 살려낼 수 있는 거의 새로운 인물로 변모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촬영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최적의 분장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⁰⁾



사진 6. 치매 노인
(SBS 「곰탕」)



사진 7. 상처 분장
(MBC)



사진 8. 동상 분장
(MBC 「까레이스키」)



사진 9. 애꾸눈 분장
(MBC 「까레이스키」)



사진 10. 바보 분장
(MBC)



사진 11. 도사 분장
(MBC 「대도전」)

영상 분장은 영상 매체 및 성격에 따라 다시 ‘TV 방송 분장’과 ‘영화 분장’, ‘광고 분장’ 등으로 나뉜다. TV 방송 분장은 TV 화면이 영화의 화면 확

10) 박승배, 앞의 책, PP.13~14.

대 현상에 비해 실제보다 축소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절제된 색상의 조화, 섬세하고 간결한 테크닉을 요구한다. 반면에 영화 분장은 대상이 대형 스크린에 의해 실제보다 확대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한 분장 방법을 요구한다.

광고 분장은 제품·기업홍보·공공기관의 캠페인 등 특수 목적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제작하는 전문 영상 광고 출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장으로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 의도에 맞게 출시한 이미지 또는 제품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¹¹⁾ 패션쇼·웨딩·사진 분장은 광고 분장과는 별 차이가 없으나, 아름답고 화사한 인물 부각이 주목적이다. 이밖에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대중 앞에 나서기 전에 기본으로 하는 분장도 있고, 앵커맨·아나운서·쇼 MC·대담자 등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인상을 명확히 살려 주기 위한 분장도 있다.

분장은 그 성격에 따라 ‘성격 분장’·‘일반 분장’·‘특수 분장’으로 나뉜다.

성격 분장은 연기자가 맡은 배역의 성격을 관객 즉 시청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분장으로 드라마나 코미디의 연기자들에게 행해진다. 이때 배역의 성격은 극본에서 얻어지는데, 극본에 표현된 대화나 설명문에 내재된 인물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환경·연령·외양 특징·작품 속 다른 인물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연기자의 외양에 따라 용모의 변화 폭을 결정하게 된다. 배역의 성격을 정하는 것은 연기에 필요한 만큼 분장에도 꼭 필요하다.¹²⁾

일반 분장은 출연자의 성격이나 개성보다는 용모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피부색을 최상으로 나타내고 조명의 강렬한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

11) 박수명과의 인터뷰, 2001. 1.

12) 박승배, 앞의 책, PP.12~23.

한 분장으로서 아나운서·MC·뉴스 캐스터·TV 리포터·TV 대담 프로그램 출연자 등에게 적용된다. 일반 분장은 다시 ‘기본 분장’, ‘뷰티 분장’, ‘스트레이트 분장’, ‘기본 패션분장’, ‘신부 화장’, 사진·포스터·광고 등을 위한 ‘기본 광고 분장’ 등으로 나뉜다.



사진 12. 시대 분장
(SBS 「임격정」)

특수 분장은 이상화된 표현에 의해서 그 성격을 묘사하는 것인데, 때로 분장이 완전히 비사실적이어야만 할 경우 극본에 제시된 등장 인물의 성격 자체가 비사실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사실적인 정확성보다는 과장·단순화·상징화·의미화된 선과 색채·형태·생물 등과 연기에 사용되는 가면도 이에 해당한다.¹³⁾

특수 분장은 다시 ‘시대 분장’, ‘성격 분장’, 데드 마스크를 이용한 ‘접착 분장’, ‘추상 분장’, ‘인종 변화 분장’,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는 추상적 인물의 ‘실제화 분장’, ‘연령 분장’, 원격 조정에 의한 근육의 움직임과 컴퓨터를 이용한 로버트의 ‘특수 효과 분장’으로 나누어진다.



사진 13. 성격 분장



사진 14.
데드마스크 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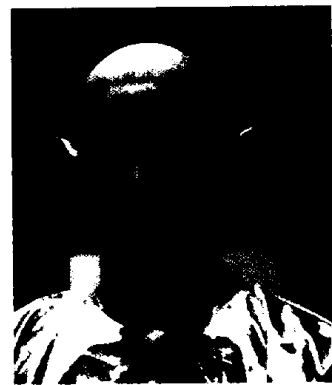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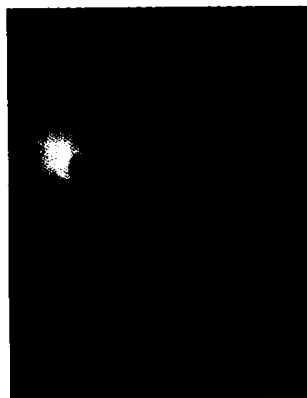
사진 15. SF 분장
(SBS)

13) Richard Corson, stage make-up, Prentice-hill ink,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6, P.264.

분장은 표현 부위에 따라 ‘정신 분장’·‘대사 분장’·‘신체 분장’으로 나누어진다. 정신 분장은 배우가 연기하는데 있어서의 진실성·영원성·순수성·예술성·신비성 등을 추구하는 분장이고, 대사 분장은 대사의 고저·장단·어투의 시대성 등을 표현하는 분장이다. 그리고 신체 분장은 얼굴 표정과 의상 일체까지를 포함하는 분장 형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분장이지만 실제로 오늘날의 분장은 ‘신체 분장’, 그 중에서도 의상은 별개의 분야로 독립되고, 신체 조건만으로 맡은 바 역할의 인물로 분장하기 위한 ‘안면 분장’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안면 분장은 헤어스타일을 포함한다.¹⁴⁾



분장 전



분장 과정 1



분장 과정 2



분장 과정 3



분장 과정 4



분장 과정 5

사진 16. 노역 분장 과정 (MBC ‘까레이스키’ 황인성 분)

14) 장우식과의 인터뷰, 2000. 11.

분장은 넓은 뜻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즉 모자의 종류, 가발을 포함한 헤어스타일, 안면 분장, 의상, 장신구, 신발류, 지참 소도구 등을 포함하지만, 현재 각 방송사의 분장은 좁은 뜻의 헤어스타일과 연면 분장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송 분장은 얼굴과 머리가 핵심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의상·장신구·의상 부품·신발과 무대의 배경 세트·가구·집기·의상·장신구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헤어스타일과 가발은 배우의 성격을 구분 짓는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서 연기자의 얼굴을 배역에 맞게 변모시키기 위해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시도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분장 기술을 지녔더라도 분장에 필요한 재료나 도구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면 효과적인 분장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분장 재료는 서양에서 발생, 보급되고 있으나 강한 기름기와 향료·색상 때문에 우리 실정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같은 동양인인 일본인이 개발한 무대 화장품이 우리의 농도나 색조에서 우리의 기호와 대부분 일치한다.¹⁵⁾

우리 나라의 배우 및 분장사들은 대부분의 분장용품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종류만도 수천 가지에 이른다. 구할 수 없는 분장용품은 일부 직업 분장사가 자가 제조해 쓰거나 다른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을 변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요즘에는 국내 화장품 회사들도 국민 생활 향상과 수요 급증에 따라 다양한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분장용품으로 적절히 활용되는 제품도 있다.

(2) 분장 관련 분야

15) 앞의 비망록.

성격 분장을 실현하는 데에는 주변 관련 학문이나 기술이 적절히 연계되어야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감당해줄 주변 관련 분야로는 골상학, 색채학, 조명, 의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관련 영역이 어떤 측면에서 성격 분장과 관련이 이루어지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골상학

얼굴의 뼈와 안면 근육에 대한 지식은 등장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기본이 되고, 등장 인물의 노역 변화에 대한 절대적인 기분이 된다. 두개골과 근육 구조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은 분장의 필수 조건이다. 턱·눈·입·코·안면 부위의 근육과 코뼈·턱뼈·광대뼈 등의 골격 위치 및 상태를 사전에 숙지해야 효과적인 분장을 할 수 있다. 근육의 긴장도와 피부 탄력은 주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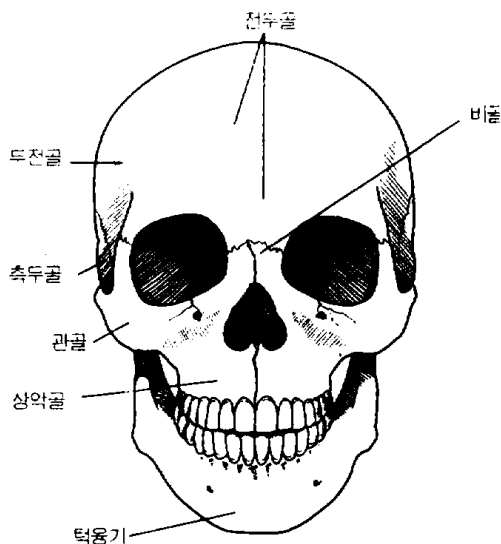


사진 17. 두개골 전면 구조



사진 18. 안면 근육 구조

② 색채학

색채와 빛에 대한 지식 또한 분장의 필수 학문이다. 빛과 색채가 서로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분장을 시작하기 전에 화장품의 수백 색상에서 색채를 선택해야 하지만, 화장품 제조 회사들의 색상 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색상 표현이 어렵다. 분장의 기본 색상은 빨간색·파란색·노란색·검정색·흰색으로서 이들 색을 서로 혼합해서 필요한 분장에 색상을 얻는다.

색의 이론과 감정을 이해하면 효과적인 분장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눈과 볼의 차가운 색, 입술의 따뜻한 색으로 색상 조화를 꾀할 수 있다. 겨울에 따뜻한 색을 주조로 사용해 평온하고 안정된 느낌을, 여름에 차가운 색을 주조로 사용해 시원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색이라도 색상·채도·명도에 따라 거리가 달라져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진색은 팽창해 보이고, 후퇴 색은 수축해 보인다. 이 같은 색채 원리를 이용해 코나 턱을 돌출되어 보이게 하고, 눈을 들어가 보이게 한다.

③ 조명

조명은 의상, 시대 배경, 인물, 색감 등 요구 조건이 많은데, 이들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 조화시켜야 잘된 조명이다. 조명의 90%는 무대 동작 선을 구분하고, 분장과 의상을 돋보이게 하며, 무대 장치의 형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조명의 각도에 따라 얼굴 음영에 많은 차이가 생기고, 정면의 조명은 얼굴을 평면적으로 보이게 한다. 조명의 종류와 각도·색상에 따라 분장 효과가 달라지므로 이들을 감안한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광 아래서의 분장은 실제 바른 것보다 2배정도 두껍게 보여진다. 태양 광선에서는 분장이 과장될 수 있다. 대본이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나 분위기 있는 장면을 요구하면 강하게 또는 특정한 장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확실한 조명은 분장 효과를 높여주지만, 부정확한 조명은 분장 효과를 감소시킴으로 최상의

분장 효과를 위해 조명 감독과 협력해야 한다. 최근에 와서 무대 장치의 일부분인 조명이 전체의 시각적 효과를 내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④ 의상

역사적으로 의복은 시간적으로는 전통적 풍습과 공간적으로는 지역에 따른 향토성을 각각 보여준다. 의상은 그 자체가 개성적인 가치를 지니며, 색채 · 형태 · 질감 · 상징 등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연기자의 의상은 극중 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다. 시각적으로 연기자와 의상은 하나의 이미지로 동화된다. 또한 의상은 착용자의 사회적 신분 · 성별 · 직업 · 개성을 나타내며, 장면 전환 기능도 한다.

2) TV 드라마와 성격 분장

(1) 드라마와 그 제작 시스템

“우리 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2시간 21분, 일요일에는 3시간 49분”¹⁶⁾일 정도로 텔레비전 시청률이 높다. 그만큼 일상에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처럼 텔레비전 방송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영향력 역시 막강하다. 텔레비전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그들의 의상 · 생각 · 취향까지 결정할 정도로 생활화되어 있다. 특히 드라마 시청률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2~64년

16) 1983년도 국민생활 시간조사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P.42.

9%에서 1965~68년 15.1%, 1969~71년 21.1%, 1973~75년 22.9%, 1976~80 24.3%로 늘어난 뒤 14.3%로 줄어들었다.”¹⁷⁾ 일상 생활에서 TV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드라마와 뉴스는 방송 편성의 양 축이라 할만큼 비중이 크며, 상호 시청률에 인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드라마 시청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체 프로그램 중 시청률 상위 10개 프로그램에서 드라마 장르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된다.

표 2. TV 시청률 상위 10개 프로그램(1997. 10. 27 ~ 11. 2)

순위	제목	방송사	장르	시청률
1	정 때문에	KBS1	드라마	41.1%
2	MBC 축구	MBC	스포츠	39.9%
3	예감	MBC	드라마	37.4%
4	경찰청 사람들	MBC	다큐멘터리(reality-based)	33.6%
5	초원의 빛	KBS1	드라마	31.5%
6	그대 그리고 나	MBC	드라마	31.1%
7	KBS 스포츠 뉴스	KBS1	뉴스	30.8%
8	TV는 사랑을 싣고	KBS1	다큐멘터리	30.5%
9	남자 셋 여자 셋	MBC	시트콤	30.4%
10	KBS 9시 뉴스	KBS1	뉴스	30.2%

이강수는 구드래드(J. S. R. Goodlad)의 이론을 바탕으로 TV 드라마는 기존 사회의 가치기준이나 문화적 규범 문화만을 반영하고 보강하는 ‘사회적 거울’ 또는 ‘모델’¹⁸⁾이면서, TV 드라마는 그것을 통해서 한 사회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교육하는 미디어로서 도구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 나라 TV 3사 드라마 제작 프로그램은 주당 35개 내외로 모두

17) 한진만, ‘한국 텔레비전 내용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p.168.

18) 이강수, 앞의 책, pp. 254~256.

90여 편이 제작, 방영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재방송 드라마까지 합하면 거의 100여 편에 달하는 드라마가 매주 방송되고 있는 셈이다.”¹⁹⁾

“방송사들의 드라마 제작 과열은 어느 장르보다 많은 제작비를 소요하면서도 비경제적인 생산과 그에 합당한 유통 패턴을 악순환 시키고 있는데, 이는 자주 거론되는 우리 나라 TV의 역기능, 즉 윤리의식의 부재·저질 대사 등과 수준 미달, 즉 낮은 완성도·조악한 세트·연기 훈련의 부재·고층 미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²⁰⁾

드라마 제작 시스템은 방송사의 인력과 시설 및 기자재를 이용하는 자체 제작,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법, 외부 독립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방법 등 3가지가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외부 독립 제작사가 대부분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 계열 프로덕션들이어서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

“드라마 제작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된다. 직접비는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를 말하며, 여기에는 극본·출연·장소 사용·조명·동시 녹음·음악·특수촬영에 드는 경비가 포함된다. 간접비는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인데, 경영이나 미술·기술 부문의 모든 경비와 건물 관리비·감가상각비 그리고 본사의 경우 제작 부문의 사원 인건비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간접비는 프로그램이 종료해야 대략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결산 종료 후 정확한 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데, MBC의 경우 대략 직접비의 2.5배를 간접비로 산정하고 있다.”²¹⁾

(2) TV 드라마의 유형과 제작 과정

19) 김기태, ‘간이역’의 제작체계 비평, MBC 드라마 일요가족극장 ‘간이역’, 한국방송비평회, 1997, P.26.

20) 한국방송개발원, 방송환경 변화와 TV 드라마의 대응, 1994, P.3.

21) 김승수,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산업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26.

텔레비전 드라마는 그 유형에 따라 일일연속극·주간연속극·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주말연속극·주간 단막극·주간 연속단막극·미니 시리즈·대하 드라마·일일 시추에이션극·특집극 등으로 분류된다.

또 내용의 시대 배경에 따라 사극·시대극·현대극·미래극·설화극 등으로 나뉜다. 사극 즉 고전극은 단군 시대부터 1910년 한일합방이전이며, 시대극은 일제시대부터 제3공화국까지, 현대극은 제5공화국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상을 각각 담은 것이다. 미래극 즉 모험극은 미래를 상상력과 추리력으로 현실화 것이며, 설화극인 추상극은 각 나라의 신화·전설 등을 줄거리로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극으로 만든 작품 즉, ‘전설의 고향’ ‘피터팬’ ‘아라비안 나이트’ 등이다.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제작전 과정과 제작 과정, 제작 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제작전 과정은 주로 기획에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예산·캐스팅 및 스태프 결정·대본 확보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제작 과정에는 헌팅(hunting)²²⁾·주제가 선정 또는 작곡·촬영이 주요 과정이다. 제작 후 과정은 편집, M·E 분리와 같은 기술적 작업, 그리고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① 제작 전 과정

드라마 제작전 과정은 기획, 예산 편성, 캐스팅 및 스태프 결정, 대본 및 콘티 작성 순으로 이루어진다.

연출자는 기획안과 예산을 확정함과 동시에 주연급 연기자와 카메라맨·미

22) 촬영에 들어가지 전에 촬영 장소 후보를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연출자가 촬영 장소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섭외’라고 부른다. 촬영 장소는 드라마 내용에 적합하면서 동시 녹음이 가능하고, 지리적·경제적 조건이 맞아야 한다. 촬영 장소 결정은 미술감독·카메라맨·연출자가 최종 결정한다. 앞의 논문, P.60.

술감독·음악 담당자 등 방송 제작진²³⁾을 선정한다.

“방송 대본은 작가와 연출자가 작곡자·미술·기술·출연자·광고·홍보·심의용의 일차 연습 대본을 만든다. 대본 읽기 연습과 촬영을 하면서 연출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적은 콘티 대본과 음악 및 자막 삽입까지 계산된 최종 방송 대본이 만들어진다.”²⁴⁾

② 제작 과정

“이때부터 드라마의 전과정은 연출자의 책임아래 진행된다. 대본을 검토하고 전 제작 파트가 모두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확정된 출연자와 전 스태프가 모여 대본 읽기와 분석을 공개적으로 한다. 대본을 읽는 동안 작품 파악·연출의도 전달·인물 성격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 각 스태프들은 연기자들로부터 촬영에 필요한 주문을 주고받는다. 미술 부문은 세트·소도구·분장·장신구·의상·CG·문자 등을 확정한다.”²⁵⁾



사진 19. 야외 촬영 중 스태프 회의 장면
(SBS 「코리아게이트」)

제작 과정은 촬영 장소를 섭외하는 헌팅, 주제가 결정, 촬영 순으로 이루어진다. 촬영은 로케이션과 스튜디오 제작으로 나누어지는데, 스튜디오 제작은 보통 3대의 카메라로 동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주일에 2, 3일은 야외 촬영, 1

23) 방송제작진은 스태프(Staff : 프로듀서·작가·AD 등 창의적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크루(Crew : 기술·기능·미술 작업 분야의 직원)·캐스트(Cast : 출연자)로 구성된다.

24) 김종학과의 인터뷰, 2001. 1.

25) 고석만과의 인터뷰, 2001. 2.

일은 스튜디오 녹화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부터 연출자는 대본에 촬영, 녹화, 편집 방식, 화면 구성을 위한 카메라 워크 기술을 기록한 콘티를 작성한다.



사진 20. 야외 촬영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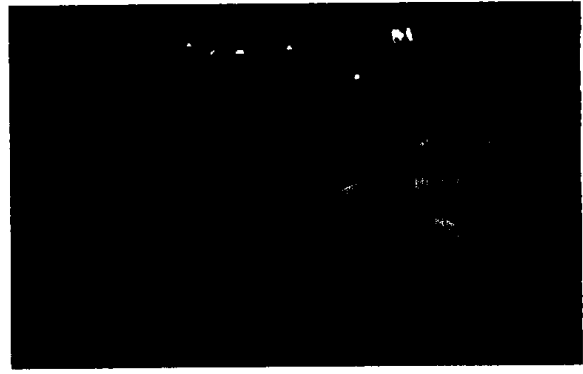


사진 21. 세트 촬영 현장

③ 제작 후 과정

제작 후 과정은 편집 대본과 콘티, 촬영 녹화된 테이프를 놓고 스크립터와 함께 순서 작업을 하고, 영상 및 음향을 조절하면서 편집하는 과정이다. 편집 후 사운드 트랙의 믹싱 효과 추가, 더빙, M·E(Music·Effect) 분리, 시사회와 홍보 등이 이루어진다.

(3) 배역의 연출과 분장

연출자/감독은 드라마/영화 제작 전반의 총괄자로 기업적 관심에 유의하면서도 다양한 예술 창조 활동을 통일시키고 공동체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²⁶⁾

연출은 영화/드라마 창조의 구체적 수행의 핵심이다. 제작의 모든 부문은 연출자/감독의 지시 아래 행해진다. 연출은 주어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로

26) 앞의 논문, P.580.

스가 말하는 환상적 자유를 구체적 소재로 바꾸어 필름에 정착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단지 시나리오에 충실한 재현자가 아니라 해석자이며 일정하게 통일된 의도 아래 독자적인 개성적 표현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예술 창조자이다. 감독의 첫째 임무는 연출 계획의 완성인데, 연출 대본이라고 불리는 콘티뉴티(continuity)²⁷⁾를 만든다.

콘티뉴티에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각 장면마다 등장 인물·액션·대사·음향에서부터 촬영 위치·각도·장면 길이 등 영화의 구체적 작업에 필요한 일체가 상세하게 지정된다. 각 쇼트(shot)의 설정에 있어서 이미지의 정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문자나 기호, 나아가서는 구도의 밀도를 더하기 위해 콘티 스케치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²⁸⁾

“드라마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연출자다. 연출자는 작가와 함께 극본을 구성하고, 연기자 선정·스텝 구성 등 드라마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그만큼 연출자의 의도대로 드라마는 구성되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드라마 제작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분장도 연출자와의 협의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출자는 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지는 않는다. 분장도 전문 영역인 만큼 분장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드라마에 적합한 성격 분장이기를 원한다. 분장은 배우의 중요한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 배우의 풍모를 감추거나 왜곡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필요한 성격적 사실을 이해시키는 수단”²⁹⁾이다.

분장은 연기자의 외모에다 극중 인물이 요구하는 변화를 시각화하는 작업이다. 얼굴의 특징을 파악하고 변형, 조화시켜 성격에 맞게 표현시켜야 한다. 그래서 극중 인물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만큼 분장사에

27) 구체적인 연출자의 지시 사항이 적힌 촬영용 대본

28) 앞의 논문, P.582.

29) 박수명 외, 분장(공연예술총서 6), 198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11

게는 사람의 얼굴 구조를 해부학적·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을 때 성격 분장의 질을 높일 수 있다.³⁰⁾

(4) 성격 분장의 과정

분장은 먼저 시놉시스(Synopsis)³¹⁾를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시놉시스는 작가와 제작진이 극의 주제와 소재, 등장 인물과 성격, 드라마의 줄거리와 진행 방향 등에 대해 합의한 뒤 만든다. 내용은 연출자의 기획 의도와 작가의 작품 의도, 주요 등장 인물의 성격 및 역할, 극의 큰 줄거리 등으로 구성

<첨록>

까 레 이 스 키

1. 기존 시놉시스의 수정 및 보강 요점

- 1) 기획과 기존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4인칭 중심인물(상규, 남영, 기훈, 기순)의 갈등관계를 명확화한다.
- 2) 중심인물의 성격에 일관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시놉시스상 인물 성격 구축의 결함을 고쳐준다.
- 3) 그로 2,3세의 이야기를 축약함으로써 4인 중심인물간의 갈등 관계를 작품 전반에 전시, 그로이 완결성을 도모한다.
- 4) 작품의 배경이 되는 러시아 현대사를 인물의 상황설로 부연해서 넣고, 인물간의 갈등관계를 통해 형식화한다.

2. 스토리의 수정 주요 요점

- 1) 설국의 러시아 이주 동기 추가 : 총포상 암화사건을 이주의 동기로 추가, 총포상 암화 사건이 언제 러시아로 간다는 목표를 제거함으로써, 설국이 러시아 혁명과정과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계연성 강화.
- 2) 기획과 남영의 이주 동기 수정 : 기획의 도입 부분과, 남영의 암화과정, 여공쟁 투쟁을 삭제함으로써 인물의 계연성 강화.
- 3) 마지막 스페인의 갈등관계 설정 : 민족주의자인 카하리히 러시아 사회 "인사인 스페인"의 대립, 민족 문제를 도입으로써, 당시 러시아 이주 한인들이 러시아 혁명에 동참하는 모습 형식화.
- 4) 사회적 사건의 비극성 강화 : 사회적 사건에서 전사하는 인물들의 구체적인 묘사로 인해 도입은 사회적 비극적 국면인 사회적 사건의 비극성 강화.
- 5) 설국과 남영의 관계 강화 : 사회적 사건의이 어둠에 설국이 기훈이 아이 출생 임박 발표, 블라디미르 스토프에서 남영과 설국의 세력에 계연성 부여, 궁전이 한 그들의 사랑 분장화.
- 6) 기훈의 성격변화 및 성장에 대한 계연성 강화 : 남영과 설국에 대한 기훈의 오해 국면 설정, 순종적 소년어린자에서 혁명스리온 여인으로의 변신과 설국이 세기 설정.
- 7) 설국의 시애틀이 수송소 향에 거부하여 남영과 기훈의 관련관계 보강으로 주요 인물의 갈등점 강화.

- 8) 서훈시 사건 이후 기훈을 설국 남영등과 원형시킴으로써 작품 원동력이 불거짐.
- 9) 하나의 남영과의 갈등 국면 보강으로, 작품 후반부까지 긴장감 유지.
- 10) 총포상 암화 사건을 지반으로 처리함으로써 작품의 주제 집중 강화.
- 11) 설국의 최고목 관련 장면지도 설국 세기, 리얼리티와 성격적 원형성 조망.
- 12) 3세 부인 삭제로 작품의 긴장성 도모 및, 4인 갈등관계의 선명성 유지.
- 13) 호영과 기훈간의 연산관계 보강, 기훈을 사건 중심축에 배치함으로써 기획의 원동 고조시킬.
- 14) 선명하게 배치한 심화를 정리, 4인칭 갈등축을 중심으로한 작품의 완결성에 충점을 줌.

3. 인물구축의 요점.

- 1) 스토프 총포사건을 1960년대로 설정
기존 시놉시스의 주요인물(상규, 기순, 기훈, 남영)을 후반에 설정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상의 결함을 보완, 상규 등 1세의 아이기로 압축 결함.
- 2) 기훈, 기순을 강화함으로써 4인칭의 갈등관계 구축.
- 3) 각 인물별 설명.
 - 가 상규 :
 - a. 소련으로부터 이주동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성격 제거, 총포상 암화 사건을으로 신변보호의 본래인이 아닌 환경 동기 부여.
 - b. 세심한애기 성격 부, 블라디미르 스페인과의 고갈 형성, 러시아혁명 과정에 뛰어드는 동기 강화.
 - c. 기존처럼 결혼에 대한 부정 부여 (남영의 죽음에 대한 오해를 설정함으로써 남영과 설국 간의 후반부 사랑의 끈을 강화).
 - d. 수송소 향에 이태리 소비티 등 고려인과의 심화 강화, 설국 동기 부여 및 소련 수송소에 감금 보강 국면화.
 - 나 남영 :
 - a. 기획과와 동기, 계보 이전까지 대연관계 보강을 수정함으로써, 주인공으로서 균형성과 노력성 부여, 설국과의 동행에 시대 구축적 장점을 제거.
 - b. 중앙 아시아 이주 이후 스텔한히 조선민족 교육 불의 탄압 상황을 보일 수 있는 원동력 보강.
 - 다 기훈 :
 - a. 기존 시놉시스에서 기훈을 북한으로 가서 죽을 당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 데 인해 기훈을 러시아 고려청년단원 (청조일부전선) 으로 설정함으로써, 작품의 주요 갈등에 대한 불만과 해석을 한일로 함.
 - b. 기훈이 남영을 애인하고, 출세를 위해 러시아 달 관부까지 향과 귀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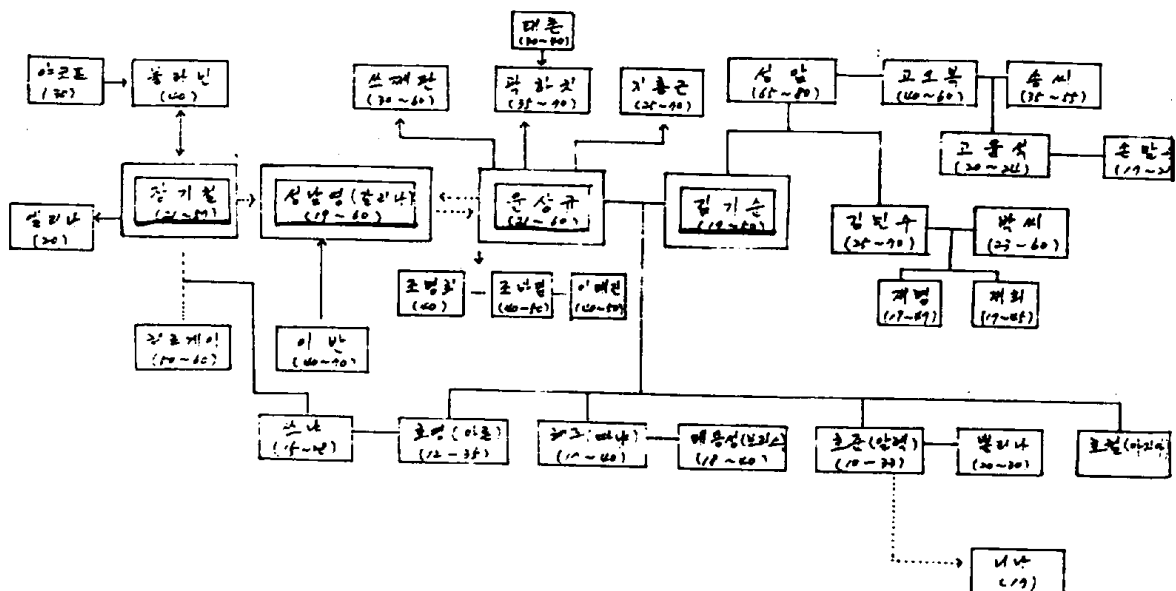
사진 22. MBC 특집극 '까레이스키'의 시놉시스

30) 장우식과의 인터뷰, 2000. 12.

31) 사전적인 의미로는 '개요, 일람' 등의 뜻.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대본 이전의 단계에 만들어지는 극의 열개'에 해당하는 요약 본을 말한다

분장 담당자는 시놉시스를 꼼꼼히 읽고 연출자의 기획 의도와 연출 기법, 작가의 작품 의도, 등장 인물의 성격 및 역할, 극의 흐름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배역 즉 연기자의 성격과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 연출자 및 각 스텝 즉 디자인 · 의상 · 장신구 · 소품 · 조명 · 카메라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분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³²⁾

< 파이썬 레이스크 > 인물 구성표 >



32) 김종학과의 인터뷰, 2001. 1.

완벽한 분장 작업 계획표는 경험과 경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분장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연기자와 연출자에게 돈독한 믿음을 주어 창조적인 분장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분장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계획하고, 디자인해 나간다면 등장 인물의 성격 분장은 성공할 것이다. 각 작품의 중요성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 활용하여 나간나

분장 계획서에는 등장 인물의 피부
색 · 머리카락 모양 및 색깔 · 얼굴 형
태 · 육체, 등장 인물의 환경, 인품 · 성
질 · 습관 등이 포함된 기질, 혈색 · 얼굴
의 수척함 · 피부 표현으로 병색, 등장
인물의 환경 · 건강 · 나이, 시대에 따른
머리 스타일 및 수염 형태 등에 대한 사
전 계획을 표시한다.³⁴⁾

사진 24. SBS 특집극 「대망」의 시영
역 분장계획서

34) 박수명, 강의록.

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분장하는 계절과 날씨, 장소를 체크한다. 다양하고 충분한 분장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사전 분장 연습을 많이 해야하며, 분장을 할 때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는다. 또한 연기자의 연기 능력·성격·특기·심리 상태까지 파악·분석하고, 모델을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배려함은 물론 완벽한 분장, 예의 친절로 신뢰감을 얻어야 한다. 분장 중에는 모든 잡념을 버리고 그 작품에만 몰입한다. 분장이 1차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연기자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역인물화가 전체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은 수정·보완한다. 이때 고정 관념을 버리고 모든 시청자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극중인물로 분하였는지 생각한다.³⁵⁾

배우의 역할은 모든 인간성이 포함되어 있는 극중 인물의 삶을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연기할 줄 알아야 한다. 분장은 이런 배우의 연기를 시각화하는 것이다.³⁶⁾

“훌륭한 분장이란 극중 인물의 성격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배우와 연출자·분장사 3인의 의견이 절충되어야 한다. 가장 훌륭한 분장은 가장 객관적인 것이다. 너무 강한 분장으로 배우의 표정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배우가 의도하지 않은 분장은 배우의 연기만 방해할 뿐이다. 예컨대 배우의 역할은 거지인데 귀공자로 분장하면 엉터리 분장이 되고 만다. 또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관객이 배우의 연기보다 분장에 신경 쓴다면 배우의 연기가 감소될 것이다.”³⁷⁾

분장은 외관상 인물을 창조해내는 작업이 큰 작업이기도 하지만 배우의 심리적 부담감을 감추어주는 역할도 한다. 여자가 화장을 하지 않고는 집밖을 나가지 않듯이 배우도 분장에 의해서 역인물을 만들고 난 후 스스로 배우의

35) 강대영, 앞의 책, PP.24~25.

36) 박근형과의 인터뷰, 2001. 1.

37) 김종학과의 인터뷰, 2001. 1.

본래 자신을 떠나 배역에 맞는 인물로 바뀌었다는 신뢰감을 주어 무대에 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연기에 임하도록 한다.³⁸⁾

배우가 몇 달 동안 맡은 배역을 위해서 연습하고 자문도 구하는 것처럼 분장사도 그 배역의 시각화를 위해 배우보다 더 많은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배우의 성격 창조는 연기력만으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분장·의상·세트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야 가능하다. 배우의 꿈은 인기에 있지 않고 넓은 범위의 성격 연기와 인간성이 포함된 배역 속에서 여러 인생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마지막 수단으로 예술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숙달된 기술자인 분장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³⁹⁾

2.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변천

1) 한국 TV 드라마의 역사

(1) TV 드라마의 변천

기존 문헌에 나타난 한국 방송사의 시기 구분은 정치 체제나 방송제도, 방송 기술의 변화들을 시기 구분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치를 보이면서도 실제의 시기 구분에서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⁰⁾ 하지만 이들의 시기 구분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1956년·1961년·1964년, 그리고 1980년 등의 시기⁴¹⁾가 텔레비전 출현 이후 한국 방송사의 시기

38) 유인촌과의 인터뷰, 2000. 12.

39) 최불암과의 인터뷰, 2000. 12.

40) 김철웅, 앞의 논문, P.16.

41)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펴낸 '한국방송총람'(pp.692-709. 나남)은 1956년·1961년·1964

구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⁴²⁾

연출가 박복만은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에 텔레비전 방송이 처음 시작된 1956년부터 KBS TV가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한 기간을 TV드라마 전야기로 잡았으며, 1961년 TBC TV가 개국하여 텔레비전 드라마가 자리잡기 시작한 때를 TV드라마 개화기, 1969년 MBC TV의 개국으로 방송 3사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TV드라마 전성기로 보았다. 그리고 방송의 저질화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매일 저녁 정책홍보 프로그램을 내보내던 1970년대까지를 드라마의 전환기로 잡았고, 박 대통령의 서거로 유신체제가 막을 내린 뒤 전두환 정권과 함께 시작된 ‘방송 통폐합’ 및 ‘컬러 TV시대’가 개막되는 때를 드라마의 변혁기로 잡았다. 6.29 선언과 함께 사회 전반의 민주화 바람의 영향으로 시청자의 의식이 달라진 1987년부터를 드라마 자율기로 정했으며, SBS-TV의 개국으로 명실공히 자유경쟁 방송체제로 들어가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진 1991년 이후를 드라마 경쟁기로 구분하였다.”⁴³⁾

이에 반해 표재순은 “태동기(1961~64년), 개화기(1965~68년), 경쟁기(1968~72년), 전성기(1973~75년), 전환기(1976~80년), 변혁기(1981~86년), 자율기(1987~1991년) 등으로 분류”⁴⁴⁾하였다.

이들의 시대 구분은 TV 드라마의 시대적 구분은 TV 방송사의 출현이나 방송 정책의 변화, TV 수상기 보급 정도, 정치 경제적 환경 등과 같은 방송 환경의 변화 시점들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 구분과는 달리 TV 드라마 변천사를 크게 흑백TV 시대와 컬러 TV 시대로 구분했다. 이 같은 영상 매체 발달에 따른 시대 구

년·1969년·1980년 등의 시기를 분기점으로 잡고 있다.

42) 대표적인 방송학자들의 한국방송사에 대한 시기 구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창섭, 한국방송총론, 서울 법문사, p.29.

43) 박복만, 앞의 책, PP.14~15.

44) 표재순, 앞의 책, P.12.

분이 TV 드라마 및 성격 분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적절하다는 생각에서다. 영상 매체의 발달에 따라 분장 재료 및 기법이 크게 달라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물론 이들의 드라마 변천사는 본 연구의 시대 구분 속에 포함되어 있다.

표 3. 한국 TV 드라마와 성격 분장의 시대적 구분

	드라마 시기 구분	기간	특성
흑백 TV 시대	전야기	1956-59	HLKZ-TV 시대
	개화기	1961-68	KBS-TV개국에 이어 TBC-TV개국
	전성기	1969-75	MBC-TV개국으로 3사 경쟁시대 돌입
	전환기	1976-80	TV수상기 보급 급증, 정부의 편성규제
컬러 TV 시대	변혁기	1981-86	방송 통폐합, 컬러 TV시대
	자율기	1987-90	방송 민주화, 시청자 의식구조 변화
	경쟁기	1991-현재	SBS개국으로 자유 경쟁

*드라마 시기 구분은 박복만의 구분에 의함

(2) TV 드라마의 내용

표재순은 1962년부터 1991년까지 30년 동안 방송되었던 TV 드라마의 내용과 유형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그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MBC TV 제작국이 발간한 「TV 드라마 편람」에 수록된 드라마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편람에 1961년부터 1970년까지의 KBS TV 드라마, 1980년도의 TBC TV 드라마, 1984년도의 KBS2 TV의 드라마들은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채 1,434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방송사별로는 KBS TV 421편, TBC TV 372편, MBC TV 486편, KBS2 TV 150편이었다. KBS TV가

MBC TV보다 드라마 수가 적은 것은 1962년부터 1970년 사이의 드라마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⁴⁵⁾

이 분석에 따르면 주간 연속극이 29%인 417편으로 가장 많았고, 일일 연속극 26%인 (376편, 특집 드라마 23%인 331편, 주간 단막극 16%인 233편, 미니 시리즈 5%인 72편의 순서였다. 방송사별로 가장 높은 편성 율을 보인 드라마 종류는 TBC TV와 KBS 2TV는 주간 연속극의 비율이 각각 37%, 27%이고, KBS TV는 일일 연속극이 39%, MBC TV는 특집 드라마가 33%였다. 표재순은 이들 드라마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1,094편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했는데, 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TV 방송 초창기에는 가정을 무대로 펼쳐지는 홈 드라마·역사 드라마·애정 드라마, 범죄 수사 또는 반공 드라마들이 대부분이었고, MBC TV 개국과 함께 3개 방송사의 드라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내용이 다양화되나, 여전히 홈 드라마·반공 드라마·역사 드라마·애정 드라마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현상은 197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1976년 이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생활상을 그린 드라마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반공 드라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대 드라마 변혁기를 맞으면서 역사 드라마가 다소 줄어드는 대신 참된 인간애나 인생 역정을 그린 드라마와 사회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배가되었고, 직장이나 이웃에서 벌어지는 인간 관계를 다룬 드라마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홈 드라마·역사 드라마·애정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점차 감소했고, 반공 드라마는 1980년 말부터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인생 역정을 다루거나 참된 인간애를 보여주는

45) 앞의 책, PP.60~61.

드라마와 사회 문제를 다루거나 직장이나 이웃에서 벌어지는 인간 관계를 다룬 드라마들이 증가하는 특징들을 보여주었다.⁴⁶⁾

표 4. TV 드라마 내용의 시대별 변천 경향

내용	개화기	경쟁기	전성기	전환기	변혁기	자율기	전체(편)
	64-68	69-72	73-75	76-80	81-85	86-91	비율(%)
성인 남녀의 애정	9 22.0	16 10.6	15 12.2	23 12.8	29 10.0	38 12.3	130 11.9
가족구성원들의 사랑과 갈등	6 14.6	35 23.2	33 26.8	35 19.6	43 14.8	50 16.1	202 18.5
직장 동료나 이웃간의 인간관계	-	35 23.2	33 26.8	35 19.6	43 12.8	50 16.1	202 18.5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2 4.9	6 4.0	1 0.8	19 10.6	21 7.2	17 5.5	66 6.0
참된 인간애 또는 인간 승리	-	3 2.0	3 2.4	14 7.8	39 13.4	40 12.9	99 9.0
사회 속 인생 역정	-	9 6.0	5 4.1	11 6.1	30 10.3	46 14.8	101 9.2
범죄 수사	4 9.8	6 4.0	3 2.4	3 1.7	5 1.7	11 3.5	32 2.9
반공 드라마	-	27 17.9	20 16.3	14 7.8	24 8.3	9 2.9	94 8.6
사회 문제	-	1 0.7	3 2.4	9 5.0	24 8.3	35 11.3	72 6.6
역사 주제	16 39.0	28 18.5	34 27.6	35 19.6	31 10.7	28 9.0	172 15.7
기타	4 9.8	17 11.3	2 1.6	12 6.7	29 10.0	8 2.5	72 6.6
전체(%)	41 3.7	151 13.8	123 11.2	179 16.4	290 26.5	310 28.3	1,094 100.0

2) 흑백 TV 시대의 성격 분장

(1) 방송 환경과 드라마 제작 현황

46) 앞의 책, PP.64~66.

우리 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은 1956년 5월 12일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탄생한 HLKZ TV 상업 방송이었다. HLKZ TV는 황태영이 RCA사와 합작으로 텔레비전 기자재를 도입하여 설립한 것⁴⁷⁾인데, 격일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정규 방송했으나 일부 특권층만이 볼 수 있었다.

HLKZ TV는 열악한 재정과 30평 정도의 스튜디오가 하나밖에 없어서 15~20분 정도의 단막극밖에 만들 수 없는 제작 여건에도 불구하고, TV 드라마는 정규 방송 시작과 함께 제작해야 한다는 제작진들의 의욕에 따라 당시 한창 인기를 끌었던 국극단(國劇團)의 창극을 그대로 스튜디오에 옮겨 재현하는 방법으로 드라마를 방영했다. 우리 나라 최초의 드라마인 「천국의 문」⁴⁸⁾과 희랍극 등 외국 작품을 번안하거나 연극을 재구성한 드라마들도 이때 선보였다. ‘천국의 문’은 구성도 단순하고 무대도 간단한 아일랜드의 희곡으로, 단 2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15분 정도의 짧은 드라마다.⁴⁹⁾

1956년에는 유치진 작 「조국」 「나도 인간이 되련다」 등의 연극 무대가 1시간 가량의 단막극으로 방영되었다. 「조국」은 우리 나라 최초의 창작 텔레비전 드라마⁵⁰⁾이었으며, 1시간 동안 생방송되었던 단막극 「사형수」는 완성도가 뛰어난 최초의 본격 TV드라마⁵¹⁾이었다. 이때의 TV 드라마는 제작진과 연기자가 대부분 연극인인 탓에 연극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초창기의 TV드라마를 이끌어갈 연출가 및 탤런트를 양성함과, KBS TV 개국과 동시에 곧바로 TV드라마를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⁵²⁾

47) 한국방송공사 편, ‘한국방송 60년사’ P.523.

48) 단 세니 원작을 번역한 것으로 당시 연출과장 최창봉이 연출했다.

49) 오명환, TV 드라마 사회학, 나남출판사, 1995, P.399.

50) ‘KBS 제작위원 황은진씨와의 인터뷰 비망록’, 1992.8.27.

51) 유길춘, 한국 최초의 본격 TV드라마는 최창봉 연출의 「사형수」, MBC 가이드 1990년 4월호, P.108.

52) 표재순, 앞의 책. p.25.

1964년 첫 민간방송인 동양TV 즉 TBC TV가 개국하면서 양 방송사의 TV 드라마 경쟁시대가 시작된다. KBS TV는 「금요무대」 「실화극장」 「연속 사극」을, TBC TV는 「연속 사극」 「검은 수첩」 「가정극장」 「바이엘 극장」을 고정 편성했다. 특히 TBC TV가 최초의 일일연속극 ‘눈이 나리는데’를 방영했으나, 방송 여건이 좋지 않아 4개월도 못되어 3편 제작으로 끝나 버렸다.⁵³⁾

1966년에는 편집이 가능한 녹화기가 두 방송사에 도입됨으로써 생방송 드라마 시대를 벗어나 본격적인 드라마를 방송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69년에 MBC가 개국된 이후부터 1973년까지는 방송사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연속극의 흥미성만이 아니라 작품성도 지녀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즉 「여로」 「아씨」 「유호극장」 등이 그 사례이다.

또 인물이 다른 사건을 계속 해결하는 방식의 시추에이션 반공 드라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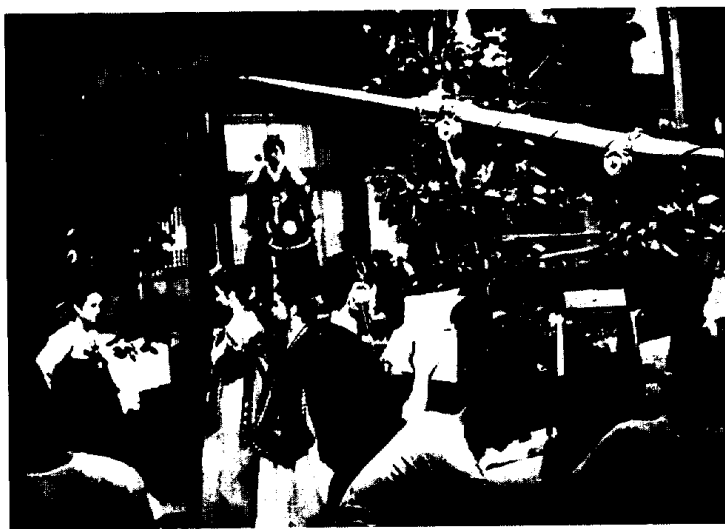


사진 25. MBC 드라마 「장희빈」의 제작 현장(1971년)

「113수사본부」와 범죄 드라마인 「특별수사반」 「수사반장」 등이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였다. 특히 이때부터 TV 3사는 일일연속극에 역량 있는 연출가를 배치하여 타사와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였다. 이런 추세는 일일연속극 전성시대로 일컬어질 만

53) 이병훈, TV 사극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25.

한 것으로 1984년 MBC TV가 일일연속극을 폐지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1974년에 접어들어서는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 즉 「꽃피는 팔도강산」 「새마을 특집극」 등과, 조상의 얼을 강조하는 일요사극 「맥」 「풍운」 등의 개성 없는 교양적 성격을 띤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그런 가운데 참된 교육을 지향하는 또 하나의 교실을 표방하는 '제3교실'이 제작되어 드라마의 다양성과 균형을 이루었다.

1978년에는 3사 모두가 3·1절, 6·25, 8·15을 맞아 계기 특집을 제작하였다, 항일 내지 극일, 반공 내지 승공의 국민감정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고전 소재에 대한 향수를 유발하는 쪽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전설의 고향」 「전설사극」이었다. 이런 전 소재의 교양적 드라마는 시청자의 이성을 호소하는 작품인 「홍 변호사」와 감성에 호소하는 작품인 「사랑의 계절」 등으로 나타나 제작진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표 5. 흑백 TV 시대의 주요 드라마

	MBC	KBS	TBC
전성기 (69-75)	사랑하는 갈대	그리워	어머니
	개구리 남편	가족	아씨
	어머니	꽃 동네 새 동네	만딸
	아버지	아들 낳고 딸 낳고	여보 정선달
	새엄마	즐거운 우리 집	하얀 장미
	강남가족	아버지와 아들	부부
	수선화		기러기가족
	갈대		임금님의 첫사랑
	신부일기		
전환기 (76-80)	억순이		
	엄마의 얼굴	순영의 시대	딸이 더 좋아
	당신		결혼행진곡
	빨간 능금이 열릴 때		엄마 안녕
	재회		그건 러
	봄치녀 오셨네		하얀 개
	청춘의 덫		야 곰레야
	딸		
	귀향		

(2) 흑백 TV 시대의 성격 분장 현황과 특성

1956년 HLKZ TV의 개국과 함께 시작된 흑백 TV 시대는 TV 방송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드라마는 제작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거나 30평 규모의 스튜디오에서 연극을 촬영, 생중계 하는 정도였다.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관객을 향해 연기하던 것과는 달리 카메라 앵글을 의식하면서 연기해야 했다.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공연 환경은 배우들에게나 분장사에게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

TV 드라마가 연극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던 까닭에 TV 드라마 분장 역시 연극 분장을 그대로 적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무대 위에서 배우와 관객간의 거리 좁히기에 익숙해 있던 무대 분장사들은 관객 대신에 반응 없는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분장을 해야만 했다. 관객의 시각 역할을 하는 카메라의 위치 및 거리에 따라 배우의 연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TV라는 새로운 공연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분장사에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흑백 TV 시대 초기에는 그에 대한 이해 부족과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TV 드라마 성격 분장이 이루어져 시행착오도 많았다. 연극 무대에서 했던 짙고 두꺼운 분장이 TV 드라마 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는 방송국의 드라마 자체 제작 및 시청자들의 인기에 편승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TV 드라마 분장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⁵⁴⁾

초기 흑백 TV 시대의 분장은 연극계에서 유난히 자신 분장을 잘 하거나 선후배의 부탁으로 그들의 분장을 해주는 횡수가 늘어나 전문 분장사로 전업

54) 박근형과의 인터뷰, 2000. 12

한 사람들이 TV로 옮기면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은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장은 연기가 직접 자신의 배역에 맞게 분장을 하고 연기했다. 이때 분장은 연기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기술로 인식되었던 것이다.⁵⁵⁾

우리 나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효시는 연극 분장 출신의 전예출이다. 그는 1961년 KBS TV 개국과 함께 TV 드라마 성격 분장을 시작해 「나도 인간이 되련다」 등의 TV 드라마 성격 분장을 진행했다.

그 뒤 최효성이 KBS TV에 합류하여 KBS TV의 분장을 주도하였다. 그러다 1964년 TBC TV가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5층에 개국하면서 분장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화 쪽에서 활동했던 장인환·조항, 연극 쪽에서 활동했던 장우식·박수명·장시성 등이 분장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중 장우식·박수명은 1969년 MBC TV가 개국하자 그곳으로 옮겼고, 김유정·김성옥·정완식·류승태·정호영·강대영·최영호 등이 제2세대 분장사로 활동하게 되었다.⁵⁶⁾

흑백 TV 시대에는 분장 재료가 턱없이 부족해 분장에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당시 분장 재료는 거의 100%가 국산이었다. 일부 외제도 있었으나 대부분 가짜여서 국산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국산 분장 재료조차 완전하지 못해 분장사들이 직접 조제하거나 제작해 사용했다. 기초 분장 품인 도랑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조차도 바셀린과 지당에 색소 안료를 섞은 뒤 파라핀을 조금 넣어 이를 연탄불에 끓여 만들었는데, 필통에 칸을 막아 그것을 부어서 분장 재료로 사용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분장사들은 부리시조차 없어 종이를 돌돌 말거나 손가락

55) 장우식과의 인터뷰, 2000. 11

56) 박수명과의 인터뷰, 2001. 2.

으로 분장했다. 예컨대 가는 선은 새끼손가락으로, 보통 주름이나 눈썹은 검지손가락으로, 굵은 선은 엄지손가락으로 분장했던 것이다. 그러다 화방에서 유화 붓을 구입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내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2세대인 정완식이 흑백 TV 시대의 드라마 성격 분장 재료와 기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정리하면,

수염을 붙이는 스피리트 껌은 송진 가루를 99% 에칠 알콜에 녹여 니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다. 이 니스는 얼굴이 화끈 화끈거리고 이상한 양주 냄새를 풍기는 등 동하기 그지없어 사극 연기자들이 이 니스를 가장 바르기 힘들어했다.

피는 처음에 케첩을 많이 사용했다. 빛깔이 연해서 느낌을 더 내기 위해 초코 시럽을 사용했다. 그러나 초코 시럽은 느낌은 좋으나 연기가 달콤해서 먹다보니 금방 없어지곤 했다. 그래서 약식 원료인 카라멜을 물에 섞어 사용했다. 그것도 없을 경우 도랑을 석유에 녹여서 사용하기도 했다.

수염은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생사를 사용했는데, 생사 값이 워낙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다. 수염을 붙이고 남은 찌꺼기를 버렸다가 혼나기도 했다. 급할 경우 개털을 잘라 노역 수염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라텍스로 만드는 애꾸눈을 오징어 껍질을 벗겨 눈에 붙이기도 했고, 쇠고기를 얇게 썰어 화상 분장으로 사용했다.

전예출은 70년대 TBC TV의 인기 드라마 「별당 아씨」에서 별당 아씨역을 맡은 홍세미의 얼굴을 흉칙하게 만들기 위해 라텍스에다 숨을 붙여 분장하려는데, 연기가 출연을 안 해도 좋다며 분장을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분장사들은 007가방을 분장 가방으로 사용했는데, 다방에서 라이터장사로 오인 받거나, 경찰에게 점문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 같은 열악한 분장 환경에서도 얼굴이 상할 정도의 분장 사고는 없었다

고 한다. 체계적으로 학습하지도 못하고 재료 부재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방송 분장으로 주도했던 흑백 TV 시대의 분장사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분장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¹⁾



사진 26.
MBC TV 수사극 「수사반장」 (1971)

대부분 본인들이 분장하거나 노메이크업 상태로 출연하였다.



사진 27.
MBC TV 연속극 「장희빈」 (1971)

음영을 강하게 했고, 수염의 디테일 정도가 지금보다 떨어진다.



사진 28.
1977년 MBC 「아리랑아」 오지명 분

노역 표현을 위한 하얀 머리 칠이 강해 보인다.

1) 정완식과의 인터뷰, 2001. 4.



사진 29.

MBC TV 「어명」 김무생 분

음영을 강하게 했고, 과장된 수염 표현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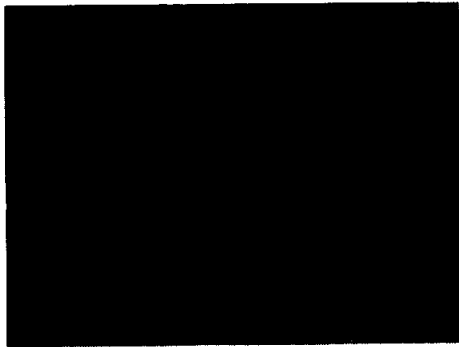


사진 30.

드라마 「아버지」 (1971)

거친 머리 칠과 두꺼운 콧수염과 진한 분장이 보인다.



사진 31. 기본 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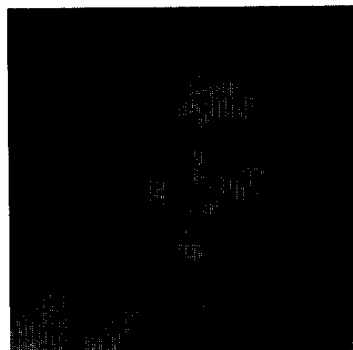


사진 32. 노역 분장
(1972년, 「새엄마」)

「정혜선」

둥근 눈썹과 진한 아이라인을 볼 수 있다.(사진 31) 20대부터 당시 젊은 배우 층으로 노인 역을 많이 했다. 분장 특징은 색도를 강하게 넣어 주름 표현을 했고, 헤어스타일로 연령 표현을 주로 했다. (사진 32)



사진 33. MBC 「집념」의 머슴 역



사진 34. 「미소」(MBC, 1979)

「이계인」

가발을 씌우고 눈썹 끝을 쳐지게 하였고, 입을 비뚤어지게 표현해 바보스러움을 나타냈다. 장발이 그 시대의 풍습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늘 눈과 짧은 콧수염으로 반항적인 이미지를 창출했다.

3) 컬러 TV 시대의 성격 분장

(1) 방송 환경과 드라마 제작 현황

1980년 언론 통합법에 따라 TBC가 KBS에 흡수 통합되면서 KBS1, KBS2, MBC 3개 채널 시대와 함께 컬러 방송 시대가 열린다. 1981년에는 어수선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각자 제자리 찾기로 메디컬 드라마 「소망」, 캠퍼스 드라마 「축제의 노래」, 산업드라마 「모닥불」이 강조되는 한편 입지전적인 자수성가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으로 기업 드라마, 현대입지전, 거부실록이 많아지는 가운데 활극 요소의 사극인 「암행어사」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보여주는 「전원일기」, 이웃과의 건전한 유대를 회구하는 「시장사람들」이 반영되었다.

1983년에 들어서도 새 정권의 사회분위기 쇄신 작업으로 한국인 재발견시

리즈·현장 드라마 시리즈·캠페인 드라마 「애처일기」 등이, 형사물과 반공물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두 형사」 「3840유격대」, TV 문학관에 대응한 문예 영상물인 「베스트셀러 극장」과 「미니시리즈」가 등장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TV 드라마의 예술론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관심사와 대상을 특화한 사이코 드라마인 「당신」 「여성극장」과 서민 사랑을 담은 어민 드라마 「갯마을」 「한 지붕 세 가족」 등으로 각 방송사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1987년부터는 청소년의 순수한 사랑을 다룬 작품과, 법과 인권의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새로운 주제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킨 「사랑이 꽃피는 나무」 「푸른 교실」 「우리들의 천국」 등이 있고, 인권보호적인 논픽션 드라마로 「80년대의 10대 사건 시리즈」, 법정 드라마로 「사람과 사람」이 인기를 끌면서 그 동안 시청 사각 지대로 인식되던 청소년·대학생 층이 시청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1년 SBS가 출발하면서 전문 인력인 작가·연기자·연출자 스카웃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시청률 경쟁의 제작 풍토가 거세지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이 트렌디 드라마로 「질투」 「느낌」 「여형사 8080」 「컬러」와 제작비가 덜 드는 시트콤인 「김가 이가」 「LA 아리랑」이 제작되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 SF드라마로 「M」 「별」 「거미」 「전설의 고향」과, 과거에 대한 통찰과 반성을 다룬 「제4공화국」 「코리아게이트」 「모래시계」, 여권 신장과 부권 약화를 다룬 「박봉숙 변호사」 「절반의 실패」 「간 큰 남자」 등이 제작되어 다양한 사회상을 드라마에 반영하였다.

표 6. 컬러 TV 시대의 방송사별 주요 드라마 현황

	MBC	KBS	KBS-2
변혁기 (81-86)	아빠의 수염	은하수	소망
	미련	지금은 사랑할 때	꽃바람
	아버지	달동네	전설의 고향
	간난이	새댁	아내
	겨울해바라기	옥동이	사랑의 조건
	타인의 아침	신촌 억순이	여자의 강
	아들아 내 아들이	엄마의 일기	
	엄마의 방	보통 사람들	
	사랑과 진실	큰딸	
	일출봉에 해뜨거든	사랑하는 사람들	
	백발의 청춘	가족	
	남자의 계절	딸이 더 좋아	
	풀잎마다 이슬	봉선화	
	첫사랑	딸의 미소	
자율기 (87-90)	사랑과 야망	서울 뚝배기	TV손자병법
	세 여인		절반의 실패
	모래성		사랑의 굴레
	행복한 여자		달빛가족
	겨울안개		
	아직은 마흔 아홉		
	배반의 장미		
	몽실 언니		
	사랑의 종말		
	마당 깊은 집	순영의 시대	딸이 더 좋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결혼행진곡
	MBC	KBS, KBS-2	SBS
경쟁기 (91-96)	말로만 중산층	옛날의 금잔디	며느리 삼국지
	고개 숙인 남자	당신이 그리워질 때	첫사랑
	사랑이 뭐길래	바람은 불어도	여자 나이 마흔 다섯
	질투	형	겨울새
	여자의 방	서있는 여자	궁합이 맞습니다.
	아들과 딸	서른한 살의 반란	가을여자
	엄마의 바다	연인	댁의 남편은 어떠십니까
	큰언니	남자는 외로워	결혼
	아들의 여자	딸부자 집	행복하고 싶어요
	서울의 달	목욕탕 집 남자들	그대의 창
	사랑을 그대 품안에	며느리 삼국지	작별
	자반 고등어	첫사랑	옥이 이모
	애인	여자 나이 마흔 다섯	엄마의 깃발
	일곱 개의 손가락	겨울새	남자 대탐험
		궁합이 맞습니다	형제의 강



사진 35. MBC 드라마
「전원일기」



사진 36. SBS 드라마
「모래시계」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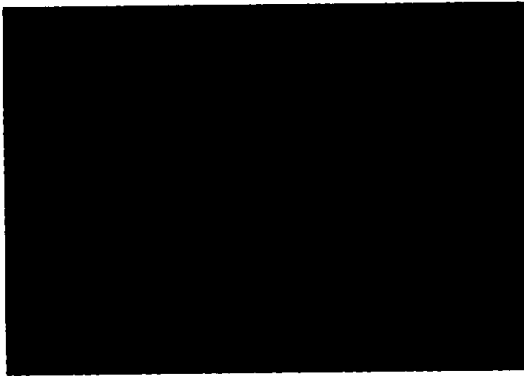


사진 37. SBS 드라마
「임궏정」 (1995)



사진 38.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1991)

(2) 컬러 TV 시대의 성격 분장 현황과 특성

컬러 TV의 등장은 모든 미술 작업에 일대 변혁을 요구했다. 화면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상·대도구·소도구 등 스튜디오 작업에서부터 그래픽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TV 미술의 기준이었던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이 무력해진 모든 미술제작 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다른 TV 분야와 마찬가지로 미술 부문도 일본 방송의 경험과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인물의 피부색과 벽체의 배면 색에서 색에 대한 조심스러운 대체는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했고, 자연 색과 물체의 질감 표현 등 새로운 TV 표현은 많은 연구와 자료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미술 제반 업무에 투자가 급증하고 인원도 대폭 확충되어 현재의 미술 부문에 대규모 조직의 기초가 되었고, 특히 인력 관리 면에서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투자에 관심을 둔 시기였다.

당시 NHK에서 오랜 기간 연구된 색상 테스트 자료와 TV 컬러 기본색 운영 체계는 우리의 TV 기본색 운영에 기초가 되어 짧은 컬러 TV 준비기간으로 인한 혼란 방지에 도움이 되었으며, 일본 기준으로 우리 TV 실정에 맞는 TV 기본색 운영의 정착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컬러 TV 방영은 TV 미술 종사자들의 의식 변화를 불렀다. 흑백 TV 시대의 방송 제작 행위에 안주하던 의식에서 벗어나 '정보의 시각화' '환경의 미화'라는 명제 아래 국제화 시대에 대처할 새로운 조형과 새로운 자제 개발, 기법 연구가 강조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생활 공간의 분위기도 날로 새로워지는 데에 따른 의식 변화이다.

컬러 TV 이후 대도구 부분은 다른 여타의 미술 부문보다 더 심각한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그것은 TV 컬러 재현이라는 소프트적인 면에서의 대응뿐 아니라 선명해진 화면에 맞는 사실적 재질감 표현이라는 문제와 화면 구성의 대면적 색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세트를 재구성해야 하는 하드웨어적인 대응까지 해야하기 때문이었다. 드라마 내용이 스튜디오를 벗어나 대형 오픈 세트가 활발해지고, 내용도 정치·경제·전원 등으로 전문화되었으며 쇼프로그램도 다양한 기획으로 전개되어 무대 디자이너는 필요한 무대 표현을 위해 변화하는 시대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TV 무대 디자인에 TV 메커니즘이 가지는 과학

기술적 측면과 디자인 기능이 접목되는 여러 가지 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픽 분야는 본연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형성으로 다른 미술 분야보다도 그 변화의 적응도가 빨랐으나 전보다 더욱 섬세하고 완벽한 그래픽 제작이 요구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 보강 및 장비 확충 문제가 선결될 과제였다.

TV 방송이란 화면에 재현된 영상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 인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TV 화면의 재현색은 거의 미술부문의 영역이므로 어느 부문보다 더 직접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의상·소품들은 출연자의 얼굴 주변에서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더욱 더 변화는 컸다. 흑백 TV 화면은 서로 다른 색상이라도 명도가 같으면 동일 면적으로 재현되므로 색상보다 명도의 차이로 면과 면이 구별되고, 약간의 고층된 시대적 유행 스타일만 표현되면 큰 문제가 없으나 컬러 TV 화면은 색상·무늬·소재·디테일한 장식·스타일 등이 리얼하게 재현되고 방송 매커니즘적 영향에 따라 실제와 약간 차이가 생기므로 다음과 같은 작업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색상과 문양 면에서 흑백 TV 화면에서 퍼지고 희미해질지 모르는 면과 면이 명확히 구분되어 사물 형상을 명료하게 나타내는 반면, 삼원색과 그 인접 색은 금지 색이 되어버렸다. 또한 일정한 화면 속에 재현된 색상들의 조화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색상의 진출성과 후퇴성, 수축성과 팽창성 등을 잘 이용하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효과적인 화면 구성을 이룰 수도 있게 되었고, 컬러 조명에 따라 재현 색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색상 선택시 조명의 변화에 따라서 재현 색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 까지도 염두에 두면 다양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소재에 있어서는 일단 과도한 반사광을 발휘하는 소재 및 원단은 얼굴 등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당시 유행하던 의상인 공단이나 반

사광 류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되어 버렸고, 홈마이카로 된 가구 류들도 광택을 없애야만 되었기에 소품 요원들은 일종의 무광택 락카 류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디테일한 의상 장식 면에서 흑백 TV 화면에서 원단의 부조화와 질의 고하를 막론하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장식품도 우아하게 재현될 수 있었으나, 컬러 TV 화면은 리얼하게 표현되므로 소재 및 장식품도 통일감 있게 디자인되어야 했다.

넷째, 프로그램 제작 형태가 흑백 TV시 모두 스튜디오 촬영하던 것이 컬러 TV와 더불어 야외 촬영이 증가, 작업량이 배가됨에 따라 특수시설을 갖춘 이동 분장 차를 제작하기에 이르렀고, 담당요원이 증가되었다.

다섯째, 컬러 TV는 시청자에게 미치는 흡인력이 커져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대형화되면서 전문요원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이처럼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후지 TV와 TV 미술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요원들의 재교육이 실시되었다.

흑백 TV에서 컬러 TV로의 전환은 조명에 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70년대 흑백 TV에서는 명암 대비로 화면의 깊이와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흑백 TV 시대의 장비는 스포트라이트가 주종이었고, 쇼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수의 효과 장비 및 가수를 비추어주기 위한 폴로우핀 스포트가 고작이었다. 컬러 조명에서는 컬러 필터로 감정을 표현하기가 쉬워지고 다양해졌다. 컬러는 집중도를 풀어놓는 요소이다. 흑백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대상물이 컬러의 경우에 있어서는 흑백 TV의 미묘한 명암 효과가 종종 흐려지고 마는데 이는 색조가 명암을 흐리게 하고 대상물의 영상 이미지를 평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⁵⁸⁾

58) 문화방송30년사, 1992, PP.400~401

분장도 컬러 TV의 등장에 따른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흑백 TV와는 달리 자연 색상에 가까운 컬러 재현력과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컬러 TV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연기자의 분장과 의상·세트·조명 등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장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KBS·MBC·TBC 등 TV 방송 3사에 젊고 패기에 찬 20여 명의 분장사가 종사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분장은 남자 일색이었으나, 여자 분장사들이 한두 명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분장은 음영에 의한 표현에서 컬러에 의한 입체적 표현으로 변화하면서 질적 향상과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방송 시간의 확대와 야외 로케이션의 증가에 힘입어 급기야 88올림픽 때에는 MBC TV에만도 20여 명이 넘는 분장사가 활동했다.

종전에 일본 제품만을 수입하던 분장 재료가 미국, 독일 등 서구 국가에서도 수입되기 시작했다. 수입 재료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에서 특수 분장 재료까지 다양했는데, 초기에는 분장사들은 재료에 대한 지식이 없어 수입해 놓고도 분장에 이용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80년대 후반부터 분장이 인기 직종으로 각광받으면서 관심 있는 미술학도들의 방송 분장계로 뛰어드는 한편 사설 분장 학원의 출현과 해외 유학의 활성화가 가속화되었다.

컬러 방송 초기에는 제품의 색상만을 중요시했으나 여러 제품의 유입과 국민 생활의 향상이 맞물려 기본 스킨 톤에도 영향을 미쳤다. 카메라 및 조명, TV 수상기의 발달에 힘입은 TV의 재현성이 우수해진 영향도 있다. 일례로 남자의 기본 스킨 톤이 10여 년 전에 비해 대략 2~3단계 정도로 밝아졌다.

그리고 식생활 습관 개선 등으로 얼굴 윤곽이 서구화되면서 과거의 기본으로 표현되었던 이마와 코 부분의 티존(T-zone)의 강조가 지금은 거의 표현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노역 분장시 단순 음영으로 주름을 표현했던

과거에 비해 MBC TV의 「생인손」에서 라텍스라는 재료를 사용했고, KBS TV 「인간의 땅」에서는 다텍스를 사용했다. 또한 MBC TV 「까레이스키」에서는 올드 스킨 플라스틱을 사용해 입체적 분장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는 콜드폼·핫폼이라는 재료와 함께 젤 스킨 등의 재료가 해외 개발과 동시에 국내에 수입되어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젊은 역할을 위해 '보톡스'⁵⁹⁾라는 주사제를 넣어 주름을 없애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사진 39. 라텍스를 이용해 표현한 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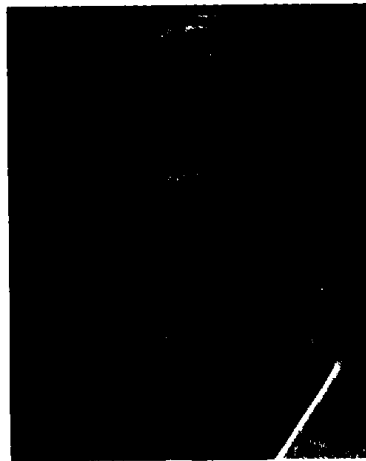


사진 40. 다텍스를 이용한 노역 표현



사진 41. 올드스킨 플라스틱을 이용한 노역 분장

분장 발전의 역사에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대머리 분장은 특히 그렇다. 1997년 대머리를 만드는 제품인 글라찬을 생산하는 독일 크레오란 본사에서 내한해 세미나를 열면서 이 재료를 이용해 반 대머리를 표현할 수 없다고 했으나, SBS TV의 「코리아게이트」에서는 그 보다 2년 전인 1995년에 전두환의 머리 분장시 이를 이용해 반 대머리를 만든 바 있다.

⁵⁹⁾ 주름을 펴는 주사제로서 주입한 약 6개월 뒤에 주름이 원상태로 복구된다. '대부 3'에서 알파치노가 이 주사제를 맞고 젊은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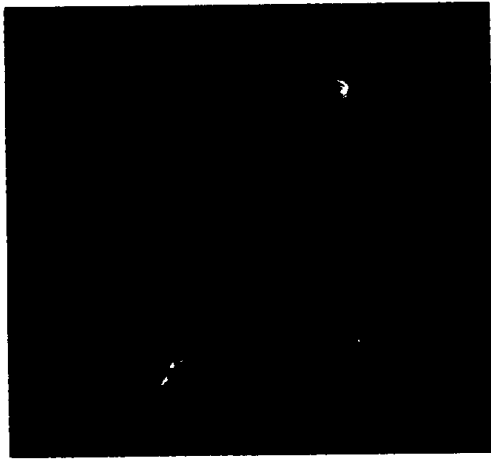


사진 42. 글라찬을 이용한
반 대머리 분장(정종준 분)

또한 현재 방영중인 KBS TV의 「왕건」에서 왕건을 제외한 여러 승려의 삭발 분장은 이 재료를 사용한 것인데, 일반 시청자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다. 이처럼 우리 TV 드라마 성격 분장은 이미 세계 수준에 와 있으며, 다른 분야의 분장을 선도하고 있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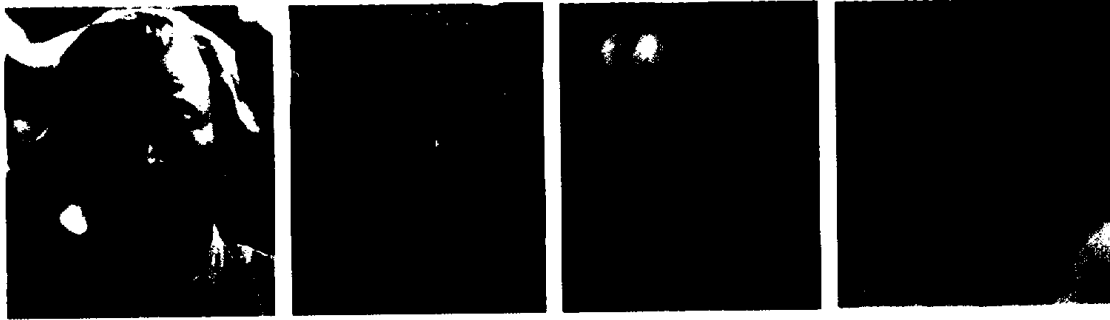


사진 43. SBS 특집극 「3김 시대」 문익환 목사 역의 분장 과정

60) 유승태와의 인터뷰, 200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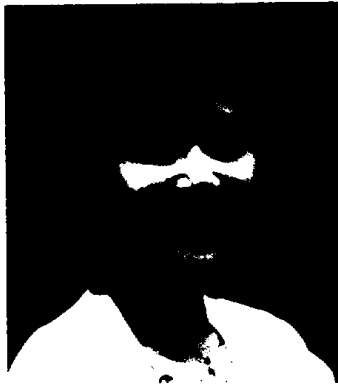


사진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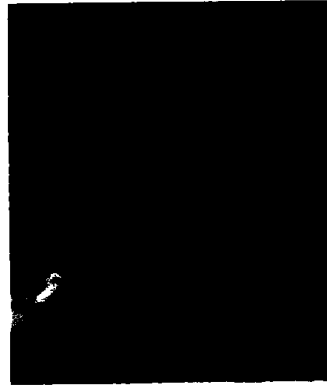


사진 44-2



사진 44-3

MBC 베스트극장 ‘환상 속으로의 여행’ 주인공(박순애 분, 1993)

환상 속으로의 여행은 못생긴 외모의 노처녀와 대금을 배우다가 우연히 만나 맹인의 환상 속에서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 주인공 박순애의 기본 캐릭터(사진 44-1), 약간 이마를 가린 헤어스타일과 굵은 테의 안경, 의치를 사용하여 못생긴 여자 캐릭터 연출(사진 44-2), 과거의 선녀 역으로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 깨끗한 이미지의 캐릭터(사진 44-3)



사진 45



사진 46

일본 전통 분장사 하부다이의 예(사진 45, 일본인이 분장), MBC ‘타국’의 분장(사진 46, 홍성민 분, 장우식 분장).

한국 분장 수준이 일본 분장 수준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Ⅲ.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사례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1. TV 드라마 제작과 성격 분장의 현실

1) 드라마 제작 및 성격 분장 시스템

“방송사의 인력은 방송사마다 약간씩 다르나 대체로 편성 운영·보도·제작·기술·관리·경영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KBS·MBC·SBS·EBS의 전체 인력은 1993년 현재 약 13,000명 선이며, 방송 3사의 직능별 종사자는 제작 부문이 1,65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98명으로 경영·관리 부문, 그 다음이 1,051명으로 기술 부문, 그 다음이 989명으로 보도 부문의 순서였다.”⁶¹⁾

이중 TV 드라마의 성격 분장을 담당하는 인력은 제작본부 산하의 미술부 또는 영상미술국에 소속되어 있다.

방송사의 예산은 직접 제작비·간접 제작비·판매 관리비 등으로 구성된다. 직접 제작비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발생 책임이 명백한 비용으로 제작 기획서 상의 출연료·문예비·미술비·제작 시설 임차료·방송권료·제작인건비·취재여비 등이 해당된다. 간접 제작비는 프로 제작에 기여했으나 특정 프로에의 추적이 곤란한 비용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부된다. 주로 송출·편성 부문 인건비와 경비 및 시설 감가상각비가 해당된다. 판매 관리비는 프로그램의 판매 지원에 관련되는 판매수수료·관리 부문의 인건비 및 운영 경

61) 한국방송개발원, 방송 제작 과정의 분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1993, P.5.

비가 해당된다.⁶²⁾

방송 3사의 제작비 비중은 간접비를 포함해 총수익의 60~70%를 차지한다. KBS의 경우 총 제작비 중 원고출연료가 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1%의 외주 제작비, 4%의 기획 진행비의 순서가 되었다.

분장 예산은 미술부의 예산에 속하며, SBS TV의 경우 연간 간접비 제외하고 1억7,760만원으로 각종 재료비 및 임시 사역비로 구성된다.

방송국 분장사는 드라마 외에 쇼·오락·뉴스 등 TV에 출연한 모든 사람을 분장을 담당하지만, 현재 많은 방송 시간과 로케이션에 비해 그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TV 방송 분장사는 속성상 촬영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촬영은 지역에 따라 '스튜디오 촬영'과 '야외 촬영'으로 나누고, 시간대에 따라 '주간 촬영'과 '야간 촬영'으로 구분된다. 제작 인원 및 장비가 매일 이합집산하는 야외 촬영은 다시 시내 촬영과 시외 즉 지방 촬영으로 구분하는데, 혼잡한 시내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능력의 낭비가 심각한 시내 촬영보다 촬영 스케줄에 따라 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시외 촬영이 작업 능률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미니 시리즈의 경우 스튜디오 제작 이전에 14~21일의 야외 촬영을 통해 3~4회분의 야외 분을 소화하고, 매주 2~4일씩 주간 촬영을 실시한다. 촬영에 동원되는 인원은 내용에 따라 크게 다르나 작게는 30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 문제도 비중이 증대되었다. 특히, 야간 촬영은 통산 주간 촬영의 3~5배,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사고의 위험도 크다. 게다가 자정을 넘기면서 촬영을 강행하는 경우 인원과 장비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증가된다.

62) 앞의 책, P.33.

분장의 경우 스튜디오 촬영 시에는 분장실에서 작업을 하지만, 야외 로케이션의 경우 각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는 분장 차가 동원된다. 그러나 그 수가 절대 부족하여 사극과 시대극에만 사용할 뿐 현대물의 경우 일반 버스나 길거리 등지에서 분장 작업이 주로 행해진다.

표 7. TV 드라마 제작 관련 부서의 업무 관계 표

제작 단계	관련 업무	관련 부서				
기획	기획서 결재	TV제작국	편성국	기획실 관재국 총무국	전무	사장
제작 준비	1. 스태프 구성(내부) 2. 헌팅(헌팅차량 배차) 3. 기재 신청(필름, 테이프, 크레인, 출연차량, 제작 의상, 제작물, 특수효과, 기타 장비) 4. 출장 신청 5. 선급 6. 대본 심의 7. 홍보	미술1부 : 세트 디자이너, 타이틀 디자이너, 세트맨, 야외세트 제작 스태프 미술2부 : 소품, 장신구, 분장, 미용, 의상 제작 지원부 카메라실 : 카메라맨, 카메라 보조 차량부 : 배차 불가시 외부 차량 이용 미술2부 -제작지원부(외부 구입시)-관재국(외부 임대차용업체) 해당부서(출장자)-총무국(인사부)-경리부(출장비 지출) 관재국(경리부) 심의실 홍보실				
야외 제작	1. 사내 촬영(스튜디오 사용) 2. 차량 배차	시설 운용부(장소 및 전기협조 사무 연락)-제작 기술국 차량부(분장 차, 기타 차량)				
내부 제작	1. 스튜디오 녹화 2. 편집	미술 1부(세트 제작)-미술2부(스텝)-제작기술국 제작 지원부 제작 지원부(ENG 편집실 배정) 편성부(VTR 편집실 배정) - 제작기술국(편집 참여)				
방송	Tape 인계 및 방송	편성부				
후반 작업	1. 제작비 청구서 결재 및 집행 2. 정산	편성국(심의)- 전산부(바우처 발행)- 제작 지원부(바우처 수령) (예산초과시) 기획실-제작 이사- 전무 경리부				

2)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실제

(1) 배역을 통해 본 성격 분장 사례

① 변학도의 경우

변학도(卞學道)는 고대 소설 「춘향전(春香傳)」⁶³⁾의 등장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무능하고 부패한 탐관오리(貪官汚吏)의 대표적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는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퇴기(退妓) 월매의 외동딸 춘향이 사랑에 빠지다 이몽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옮기면서 남원부사로 새로 부임하는 대목에서 등장한다.

그는 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요구하고, 그것이 거절당하자 춘향을 옥에 가두고 고초를 받게 하여 사경에 빠뜨린다. 그러나 그는 각 읍의 수령들이 모인 자신의 생일 잔치날에 과거에 급제, 암행어사가 되어 어사 출토한 이몽룡에게 파직된다.

이처럼 변학도는 특권 계급의 전횡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주인공 춘향과 이몽룡 못지 않은 중요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므로 드라마 성격 분장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크게 중시될 수밖에 없다.

악역의 인물로 등장하는 변학도를 강력한 성격적 인물로 삼고 있는 “춘향전은 우리 나라 TV 사극에서 가장 많이”⁶⁴⁾ 제작한 드라마이다. 실존 인물이

63) 한국 고대소설의 대표작. 판소리 12마당의 하나이다. 조선 영조·정조 전후의 작품으로 추측될 뿐, 작자·연대는 미상이다. 「춘향전」은 처음 판소리로 생성되어 나중에 소설로 정착되었고, 다시 원각사(圓覺社) 이후에 창극(唱劇)이 되었으며, 그 뒤에 회극·영화·시나리오·뮤지컬 플레이·오페라의 대본 등, 다양한 장르를 거쳐왔다.

64) 변학도 등장 드라마(팔호 안은 연기자) : 1967년 TBC 「성춘향」(김성원), 1971년 KBS 「춘향전」, 1974년 MBC 「성춘향」(오현경), 1980년 TBC 「대춘향전」(김성원), 1984년 KBS 「TV 춘향전」(백윤식), 1984년 KBS 「탈선 춘향전」, 1988년 KBS

아닌 가상 인물이기 때문에 성격 창출이 어렵다. 그래서 분장사들은 그의 성격을 인상학적인 측면을 참조해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형화된 분장이 되어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비슷한 성격 분장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47. 이대근 분
(「춘향아씨 한양 왔네」
MBC, 1996)



사진 48. 변학도
KBS 「춘향전」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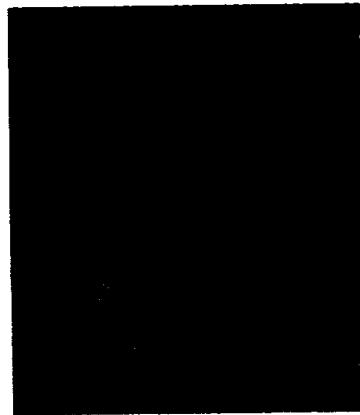


사진 49. 변학도
KBS 「춘향전」
(1984)

드라마에 있어서 의상은 조선시대 복식을 참조하면 되지만, 분장은 참조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극중 역할에 맞게 상상해서 분장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분장사의 능력이 다른 분야의 드라마 성격보다 더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분장할 때 대체로 그의 특징인 사악함을 표현하기 위해 눈썹 및 수염을 거칠고 음흉하게 표현한다. 눈썹을 진하게 하고 꼬리를 치켜올리고 눈 주변을 붉게 하는 등의 표현으로 음흉함을 나타내고, 수염을 많이 하여 강한 성욕을 표현한다. 그리고 콧수염을 끝이 올라가는 형태의 카이젤로 하여 포악함을 나타낸다.

「춘향전」, 1994년 KBS 「춘향전」(주현), 1996년 MBC 「춘향 아씨 한양 왔네」(이대근)

② 대원군의 경우

“대원군은 원래 조선시대에 왕위를 계승할 적자이지만 형제가 없어 종친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때 새로운 왕의 생부를 호칭하던 말이다.”⁶⁵⁾ 그런데 대원군은 대부분 홍선대원군을 지칭한다. 홍선대원군은 영조의 5대 손으로 본명이 이하옹이다. 1843년인 헌종 9년에 홍선군에 봉해졌으나 안동 김씨의 왕족에 대한 감시가 심해 보신책(保身策)으로 불량배와 어울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철종 사후 고종 즉위 때 대원군에 봉해져 어린 고종의 섭정이 되어 안동 김씨의 주류를 숙청하고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 부패 척결, 행정권과 군사권 분리, 귀족과 상민의 차별 없는 과세 등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했으나 천주교도 박해 등 쇄국정치를 고집해 국제 관계 악화 및 외래 문명 유입 지연 등 실정을 초래해 최익현의 탄핵으로 은퇴했다.

임오군란으로 다시 정권을 잡았으나 며느리 명성황후의 책동으로 청나라로 4년간 유배된 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에 의해 영립되어 갑오개혁을 시도했으나 집정에 실패했다. 이듬해 일본의 책략으로 다시 정권을 장악했으나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정권을 내놓았다.

대원군은 지금까지 TV 드라마로 8차례 제작⁶⁶⁾되었다. 그의 초상과 별개로 드라마상의 성격 표현을 위해 실제 작은 체구의 외모임에도 덩치 큰 배우를 캐스팅해서 강한 이미지를 수염을 많이 붙여 표현했다.

65) 조선의 대원군 제도는 선조(宣祖)의 아버지 덕흥군(德興君)을 덕흥대원군으로 추존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철종의 아버지 전계(全溪)대원군·인조의 아버지 정원(定遠)대원군 등이 있다.

66) 대원군이 등장하는 드라마(괄호 안은 연기자) : 1966년 TBC 「대원군」(김성옥), 1972년 MBC 「대원군」(전운), 1976년 TBC 「햇불」, 1982년 KBS 「풍운」(이순재), 1985년 KBS 「젊은 그들」(김홍기), 1989년 KBS 「바람과 구름과 비」(김홍기), 1990년 MBC 「대원군」(임동진), 1995년 KBS 「찬란한 여명」(변희봉)



사진 50. 대원군 초상화.
19세기. 작자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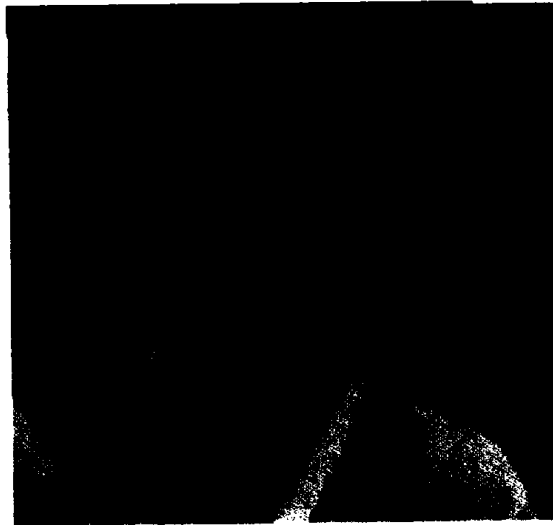


사진 51. 임동진 분
(MBC, 1990)



사진 52. 변희봉 분
KBS 「찬란한 여명」 1996



사진 53. 김홍기 분
KBS 「바람, 구름, 비」 1989



사진 54. 이순재 분
KBS 「풍운」 1982

③ 김구의 경우

김구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894년 고향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지휘했으며, 3·1운동 후 상하이[上海]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해 경무 국장·내무총장·국무령, 한국 독립당 총재 등을 역임했다. 항일 무력 결

사 단체인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 이봉창·윤봉길 등의 의거를 지휘했고, 장제스[蔣介石]와의 한국인 무관학교 설치 및 대일본전투방책을 협의했다. 8·15광복으로 귀국했으나 임시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했으며, 1948년 국제연합의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실시 결의에 반대해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 정치회담을 열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그는 정부수립에 참가하지 않았다.

김구는 지고지순한 애국성과 애국심의 소유자로 동학의 선봉장이 되고 의병 부대에 투신해 일본군 특무장교의 처단, 광복군 창군 등 담대한 성품과 용감성을 보여주었으며, 성실과 열성, 포용과 협동의 미덕을 지녔다.

김구는 TV 역사극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⁶⁷⁾이다. “가장 기억되는 김구 배역으로는 1981년 MBC 정치 드라마 「제1공화국」에서의 이영후를 들 수 있다. 그는 1945년 김구의 말년을 중점적으로 다룬 드라마에서 짧은 시간에 김구의 이미지를 창출했다. 연출자는 신선함을 전달하기 위해 덜 대중적이면서도 보다 닮은 사람으로 그를 캐스팅했다.

1989년 MBC 「백범일지」의 김구로 출연한 김진태의 경우는 그가 갖고 있는 파워와 직설적인 부분을 활용해 김구의 일대기를 그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1984년 KBS 「독립문」의 김구 역을 맡았던 이치우의 경우 김구의 피부 상태 즉 곰보를 활용하고자 캐스팅 되었으나 단순한 외형만으로 성격에

67) 김구가 등장하는 드라마 : TBC 「조선총독부」(1968), KBS 「개화백경」(1972), KBS 「북위 38도」(1973), KBS 「거부실록」 「죽음의 땅 저편에서」(1979), MBC 「제1공화국」(1981), MBC 「거부실록」(1982), KBS 「하늘은 알고 있다」(1983), KBS 「독립문」(1984), MBC 「조선총독부」 「북위 38도선」(1985), MBC 「그의 아내」 「님의 침묵」(1986), 「백범일지」(1989), 「반민특위」(1990), 「님이여」(1992), 「김구」(1995)

어려움이 많았던 사례를 보여준다. 드라마에 있어서 김구와 박정희의 분장은 실제 인물을 그대로 닮게 하는 초상(모사) 분장으로 성격 분장의 범주에 속한다.”⁶⁸⁾



사진 55. 중경 시절의
김구



사진 56. 이치우 분
KBS 「독립문」 (1984)



사진 57 .
「제1공화국」 이영후 분.



사진 58. 김진태 분
MBC 「백범일지」 (1989)



사진 59.
정욱 분

68) 고석만과의 인터뷰, 2001. 1.

④ 박정희의 경우

박정희는 경북 선산 출생으로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중위로 복무하다 광복 이후 국군 창설에 참여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을 주도,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해 제3공화국 재임동안 '한·일 국교정상화' '월남파병문제'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1972년 국회 및 정당해산과 전국 계엄령 선포 후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유신정권인 제4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유신시대 초기에는 새마을운동의 전국민적 전개로 농어촌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였고, 제5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완성으로 국민들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상대적 빈곤의 심화와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 국민들의 반유신 민주화운동으로 내치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이를 통일문제로 돌파하고자 7·4남북공동성명과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제시했으나 북한의 비협조와 당시의 국제정세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79년 궁정동 만찬석상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급서했다.⁶⁹⁾

박정희는 TV 드라마에서 7차례에 걸쳐 다루어졌는데, 이진수·이창완·독고영재 등이 그의 역할을 맡았다. “이진수와 이창완은 외모가 닮은 쪽에 중점을 둔 캐스팅되었으며, 이진수는 연기자의 위상과 아주 적절한 경우에 해당된다. 1980년도 이 드라마가 방송될 당시에는 정치 드라마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충격적 사건이 될 수 있는 때였다. 이진수의 경우는 3공화국 당시 너무 늙어 보여 실내에서조차 선글라스를 끼고 연기했다. 이창완의 경우는 박정희와 가장 닮았으나 당시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에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기자의 대중적 이미지가 박정희와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연기나 외형을 흉내낸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박정희의 권위 부각에는 미흡함이 따랐다. 독고영재의 경우는 박정희와의 외모가 닮은 쪽보다

69) 두산세계백과사전,

는 박정희의 권위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캐스팅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 중심으로 가고자 한 연출자의 의도와는 달리, 시청자들은 박정희와 외모가 닮은 쪽에 선호도를 보였기 때문에 원래의 의도와 달리 나타났다.”⁷⁰⁾



사진 60. 실제
박정희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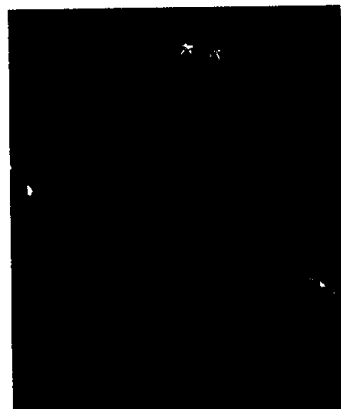


사진 61. 이진수 분
(MBC 「제3공화국」
1989)



사진 62. 이창완 분
(MBC 「제4공화국」
1995)



사진 63. 독고영재 분
(SBS 「코리아게이트」 1995)



사진 64. 이창완 분
(SBS 「3김시대」 1997)

70) 고석만과의 인터뷰, 2001. 1.

⑤ 기타 배역의 경우



사진 65



사진 66

MBC 8.15 특집극 「낙동강」에서의 여인(고두심 분, 1993)

일제 말기 낙동강 하구 작은 마을의 허 진사 집안이 겪는 고초와 항거, 그리고 수난 속에서도 가문을 지켜나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

여기서 고두심은 주인공 여인의 역할을 맡았으며, 양반가의 며느리 역을 연출하기 위해 깨끗한 이미지로 분했다.(사진 65) 대쪽 같은 성격으로 늙은 대가집 마님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에 흰칠을 부분적으로 하여 고상함을 나타냈고, 주름도 잔주름을 가급적 없애 강함을 표현했다. 40대 초반을 70대로 분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사진 66)



사진 67.

SBS드라마 「덕이」에서의 최달중(조형기 분, 2000)

두 배 다른 자매가 겪는 가정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이 드라마에서 조형기는 이모부이자 인정이 많은 이발사 역할을 했다. 분장은 1960년대 분위기를 내기 위하여 포마드를 발라 가르마를 탔고, 애교 머리를 내려 직업을 나타내려 했다.(사진 67)



사진 68.



사진 69.

MBC 8.15 특집 드라마 「춘사 나운규」에서의 나운규(이덕화 분, 1991)

한국 최초의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춘사 나운규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 당시 연극인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전체적으로 강조했으며 수염은 스타킹에 부착했다.(사진 68) 실제 나운규의 모습을 하기 위해 앞머리가 길고 고데를 한 가발을 씌웠으며, 짙은 눈썹을 강조했다.(사진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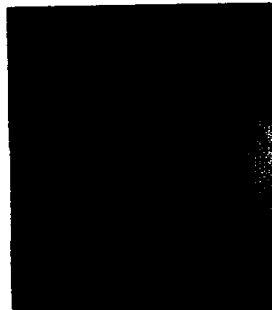


사진 70. MBC 「까레이스키」에서 10~80대 연령으로 분한 김희애.

「까레이스키」의 난영(김희애 분, 1991)

1991년 MBC 특별 기획으로 고려인의 소련 강제 이주사를 다룬 드라마 「까레이스키」에서 김희애는 주인공 난영 역을 맡아 10대부터 80대까지의 1대기를 연기했다. 실제 20대 후반을 80대까지 점차적으로 연령 분장하는 데 있어서 표현상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으나 올드 스킨 플라스토를 이용한 80대 때의 분장은 인상적이었다.

(2) 연기자별 성격 분장 사례

① 최불암의 경우

최불암⁷¹⁾은 “생김새나 연기가 지극히 토속적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적인 서민상을 표현하는 바, 텃텃하다든가 구수하다든가 무던함을 그대로 대리 연출하고 있다. 그가 머리에 번들번들한 포마드를 쳐바르고, 카바레나 길바닥에서 바람난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들이라든가, 번지르하게 차리고 나서서 여자와 통속적 ‘행복’이나 ‘희망’ 등을 읊조리는 장면을 우리는 잘 상상할 수가 없다. 공사판 십장으로 일하면서 텃수룩한 수염에 막걸리를 묻히며, 인부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거나, 자식들 몰래 아내의 등을 긁어 주면서, 웃으면 실눈이 되는 눈을 더욱 오그라뜨려 허허허 웃는 농부 상이 더 어울린다.”⁷²⁾

최불암은 1998년 「행복을 팝니다」에서의 바보 성격, 1978년 「정부인」

71) 1938년 출생으로 본명은 최경한. 한양대 연극영화과 졸업며, 1967년 KBS-TV 특채로 입사해 「아버지」 「한백년」(KBS), 「개구리 남편」 「길」 「기러기」 「새엄마」 「꽃사슴」 「수사반장」 「그대 그리고 나」 「장미와 콩나물」 「아름다운 서울」 「사랑은 아무나 하나」 「큰형님」 「북에서 온 형」 「홍국영」(MBC) 등에 출연했으며, 1980년부터 현재까지 「전원일기」(MBC)에 출연하고 있다.

72) 최일남, 연예/방송:최불암-넉넉하고 토속적인 이 시대의 아이덴티티, 스크린, 1984년 4월호.

에서 내시 역, 1971년부터 89년까지 방영했던 「수사반장」에서 강하고 친근한 반장 역, 1981년 당시 정치드라마의 한 획을 그었던 「제1공화국」에서 이승만 역으로 분해 이마를 넓게 보이게 하고 머리를 뒤로 젖혀 드라마 인기에 편승해 최불암적 이승만으로 만든 대표적 성격, 1992년 「타오르는 강」의 노역, MBC 베스트극장 「풍경」에서 노 화가로 분, 1992년 「여명의 눈동자」에서 병든 독립운동가 역으로 덩수룩한 에어스타일과 수염, 병색을 나타내기 위한 눈 주변과 입술 탈색 표현하기도 했다.



사진 71.



사진 72.



사진 73.



사진 74.



사진 75.



사진 76.



사진 77.



사진 78.



사진 79.

② 박근형의 경우

박근형⁷³⁾은 “60, 70년대 안방극장에서 당대 유명한 여자탤런트 들의 상대역으로, 멜로드라마의 주역을 독차지해 왔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성격배우로의 변신을 절실히 느꼈던 그는 90년 초,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필두로 이전의 「멋진 왕자님」 역할에서 탈피, 개성 있는 인물들을 연기해내기 시작했다.

95년, SBS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그가 연기한 윤재용 회장, 치밀한 두뇌와 계략으로 카지노업계 대부로 군림하는 역할 역시 성격배우로 변신하기를 꿈꾸었던 오랜 소망의 결과다.”⁷⁴⁾

날카롭고 깔끔한 서구적인 마스크로 도회적이고 우수에 젖은 분위기와 사람냄새 진하게 풍기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역할 등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여 왔다.

1992년 MBC 「여명의 눈동자」에서의 일본 형사 역(사진 81), 1996년 SBS 3.1절 특집극 「안중근」에서의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 역(사진 82), 1990년 MBC 미니시리즈 「내 마음은 호수」에서의 실제 나이보다 젊은 역으로 눈 주변의 주름을 제거하고 머리를 내려 젊어 보이게 한 캐릭터(사진 83), 1992년 SBS 「형제의 강」에서 두툼한 수염으로 고집스런 아버지 역(사진 84) 등을 통해 박근형의 캐릭터 변모를 읽을 수 있다.

73) 1940년 출생으로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1963 KBS 공채탤런트로 방송에 데뷔해 「사랑할 때까지」 「강력반」 「꼭지」 「비단향 꽃무」(KBS), 「하얀 민들레」 「여명의 눈동자」 「사랑과 성공」 「애드버킷」 「호르는 것이 세월뿐이라」 「눈물이 보일까봐」 「날마다 행복해」 「햇빛 속으로」 「맛있는 청혼」(MBC), 「모래시계」 「형제의 강」 「7인의 신부」 「불꽃」 「경찰특공대」(SBS) 등에 출연했다.

74) 영화 「아버지」 주역 맡은 탤런트 박근형, 여성동아 1996년 3월호.



사진 80.



사진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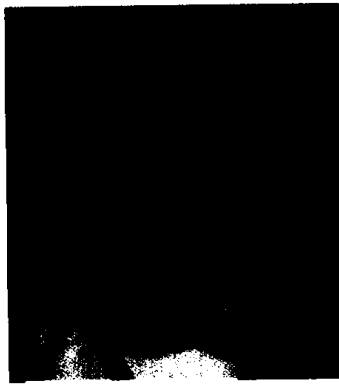


사진 82.



사진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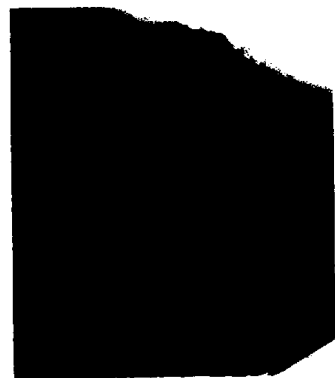


사진 84.

③ 유인촌의 경우

유인촌⁷⁵⁾은 1994년 MBC 동학 100주년 기념 「새야 새야 파랑새야」에서
의 전봉준 장군의 역. 초상을 토대로 초상 즉 모사 분장한 예로 머리는 시대
에 맞는 풀 상투에 앞판을 붙이고 수염은 부위는 적고 강하게 하고, 또한 눈
에 강렬함을 주기 위해 색도를 넣었다.

1995년 SBS 「코리아게이트」에서 로비스트 박동선의 역으로 머리에 기름

75) 1951년 출생으로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1979년 「정조」로 데뷔해 「여름편지」(KBS), 「제 3국인」 「3김 시대」(MBC)에 출연했으며 현재 「전원일기」(MBC)에 출연하고 있다.

을 발라 넘겼으며 안경을 설정하였다. 1997년 SBS 「3김 시대」에서 김대중 역에서는 머리선을 M자로 만들었고, 머리 볼륨을 주어 두상이 커 보이게 했으며, 광대뼈를 돌출되어 보이게 했다. MBC 「도망자」에서 80대 노인으로 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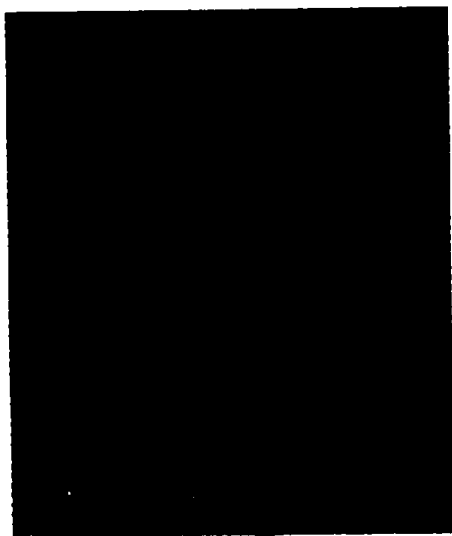


사진 85.



사진 86.



사진 87.



사진 88.



사진 89.

④ 최재성의 경우

최재성은 개성 있는 연기를 주로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MBC의 「여명의 눈동자」와 SBS의 「승부사」를 들 수 있다. 「사진 90-1~4」는 여명의 눈동자에서 빨치산 역으로 분한 것이고, 「사진 91-1~5」는 승부사에서 사기꾼 역으로 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한 사례이다.



사진 90-1



사진 90-2



사진 90-3



사진 90-4



사진 91-1



사진 91-2



사진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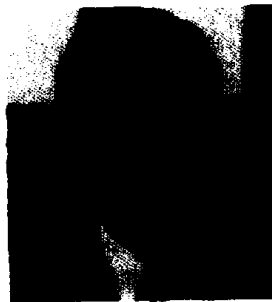


사진 91-4



사진 91-5

3) 성격 분장에 대한 드라마 제작자의 인식과 태도

(1) 설문 조사 개요

연구자는 2001년 2월에서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TV 드라마 제작진 즉 연출가·연기자·TV 드라마 성격 분장사와 시청자 등 모두 714명을 상대로 「한국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분야별로는 PD 72명·연기자 219명·분장사 117명·시청자 306명 등이며, 연령별로는 20대 192명, 30대 279명, 40대 141명, 50대 이상 102명이었다.

설문 조사는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지의 질문은 객관식 즉 5지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성했다. TV 드라마 제작진에게는 18~21문항 즉 연기자 18문항, PD 18문항, 분장사 21문항의 질문, 시청자에게는 8문항의 질문을 각각 제시했다. 질문 구성은 성격 분장 인식에 대한 공통 분모 추출을 위한 공통적인 것과 분야별 인식도 분석을 위한 독자적인 것으로 나누어 했다. 특히 TV 드라마 제작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으로 질문했으며, 상호간의 이해와 희망 사항에 대해서도 각각 질문했다.

표 8. 설문 응답자 분포 (단위 : 명)

연령\장르	PD	연기자	분장사	시청자	합계
20대	5	54	28	105	192
30대	36	57	66	120	279
40대	9	60	12	60	141
50대 이상	22	48	11	21	102
합계	72	219	117	306	714

TV 드라마 제작진과 시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질문은 우리 나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수준과 필요성, 각각의 입장에서 본 잘 된 성격 분장 및 잘 안된 성격 분장에 대한 것이었다. 제작진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분장사의 자질 문제, 분장사의 업무 이해 정도, 분장 수정 요구 정도, 분장사과의 대화 여부, 배우의 이미지 손상 분장에 대한 수용 태도, 배역에 충실한 분장 여부, 분장 시간의 충분 정도, 분장의 계획성, 드라마 사전 제작의 필요성 및 기여 정도, 분장 발전에 필요한 요소, 분장사가 고쳐야 할 점, 분장사에게 바라는 사항 등이었다.

한편 연구자는 응답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그래서 항목마다 응답자 수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그 편차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드라마 및 분장의 제작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들에 대한 질문은 가능한 전문성을 배제해 구성했다. 따라서 다소 평이한 질문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진들과 시청자들간의 인식 차이를 충분히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조사는 일반인 및 전문인의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대한 인식을 파악과 성격 분장의 방향 설정의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2) 설문 조사 내용 및 결과

① 성격 분장의 필요성

TV 드라마 제작진 즉 연출가·연기자·분장사와 시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한 성격 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긍정했다. 제작진의 경우 “분장이 드라마 배역의 성격 표출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 54%, ‘그렇다’ 38% 등 91%가 긍정을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연출가의 89%, 연기자의 94%, 분장사의 87%가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은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 이는 드라마 제작자들이 드라마에 있어서 분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시청자의 경우 “드라마에 있어 성격 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93%가 ‘매우 그렇다’의 54%, ‘그렇다’의 40%로 나타나고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 ‘전혀 그렇지 않다’가 1%로 3%에 지나지 않았다.

도표 1. 분장이 배역 성격
표출에 도움된다(제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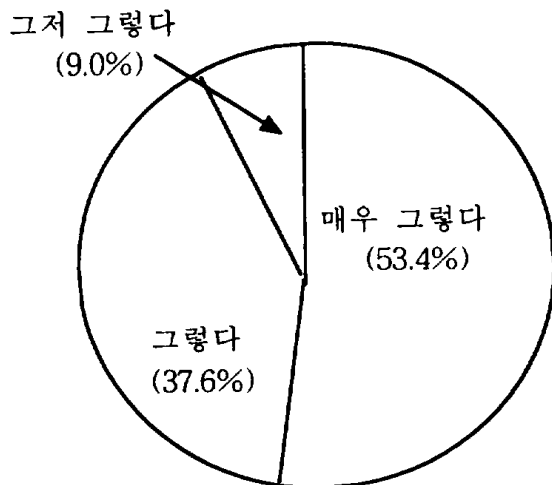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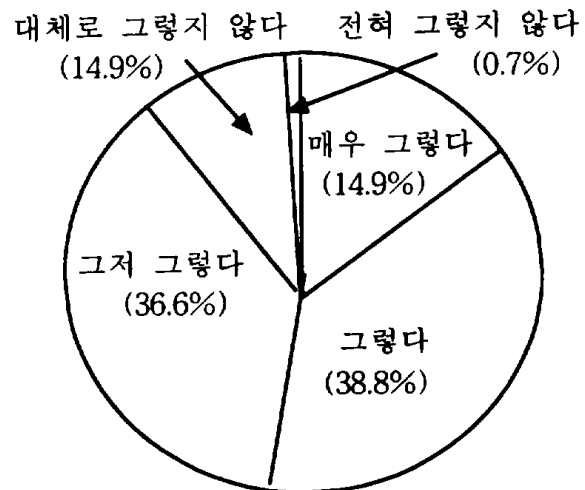


도표 2. 현재 우리 나라 TV
드라마 분장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② 성격 분장의 수준

현재의 우리 나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 수준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TV 드라마 제작진과 시청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제작진의 경우 '매우 그렇다' 15%, '그렇다' 39% 등 54%가 만족을 표시했고, 시청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62% 등 6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제작진 37%, 시청자 35%이거나, 부정적인 응답이 제작진 11%, 시청자 4%인 점을 분장사들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연기자들은 우리 나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 수준에 대해 '매우 그렇다' 19%, '그렇다' 48% 등 67%가 좋게 평가했고, 분장사들도 '만족'이 38%, '그저 그렇다'가 42%로 나타나 비교적 좋게 평가했다. 반면에 연출가들은 '그저 그렇다'가 65%로 나타나 대부분 보통이라면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24%로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11%에 불과했다.

이처럼 연출자와 연기자·분장사의 상충된 평가는 그들이 같은 드라마 제작자이면서도 '능동적/피동적' 역학 관계에 있고, 드라마 제작에 관한 입장 역시 '적극적/소극적' 형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기획과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연출자가 우리 나라 TV 드라마 분장 현실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드라마에 있어서 분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는 TV 성격 분장이 연출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분장사의 TV 드라마 및 캐릭터 분석과 그에 적합한 기법 개발 및 발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③ 분장사의 자질

분장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연출자와 연기자에게만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뛰어나다' 17%, '뛰어나다' 39% 등 대부분이 긍정적이었다. '그저 그렇다'는 38%였고, '대체로 뛰어나지 않다'는 4%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연출자와 연기자의 견해 차이는 컸다. 연출자들은 17%만이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연기자들은 '매우 뛰어나다'가 22%, '뛰어나다'가 44%로 나타나 65%가 긍정적이었다. 부정적인 대답도 연출자가 11%, 연기자가 1%로 차이를 보였다. 이

는 분장사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도표 3. 우리 나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사의 자질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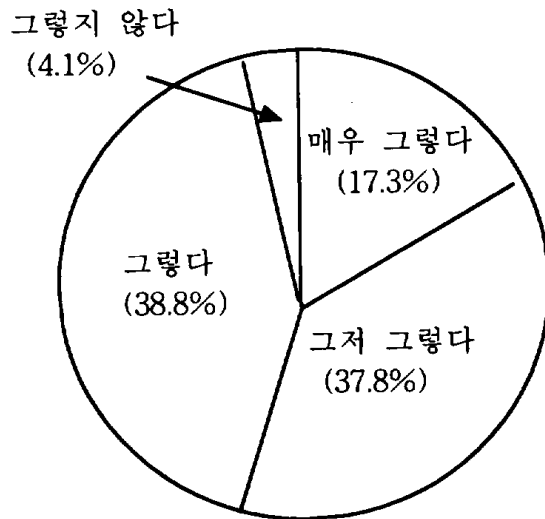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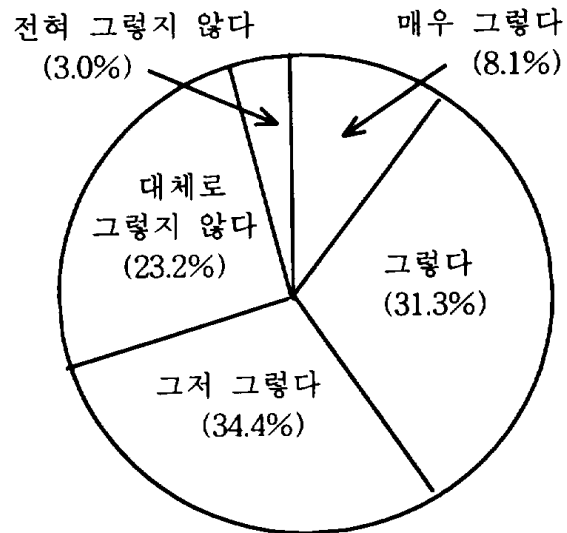


도표 4. 현재의 분장이
계획적이다



④ 분장 작업의 계획성

TV 드라마 제작진은 "현재의 분장이 계획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8%, '그렇다' 31% 등 40%가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부정적인 대답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23%, '전혀 그렇지 않다' 3% 등 26%였다. 그러나 연출가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60%, '전혀 그렇지 않다' 17% 등 77%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보다 계획적인 분장을 희망했다.

⑤ 분장사의 분장 이해 정도

TV 드라마 제작진은 분장사가 "배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장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74%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4%밖에 되지 않았다. 앞서 분장 수준이나 분장사의 자질에 대한 평

가에 비해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5. 분장사는 배역을 이해하고 분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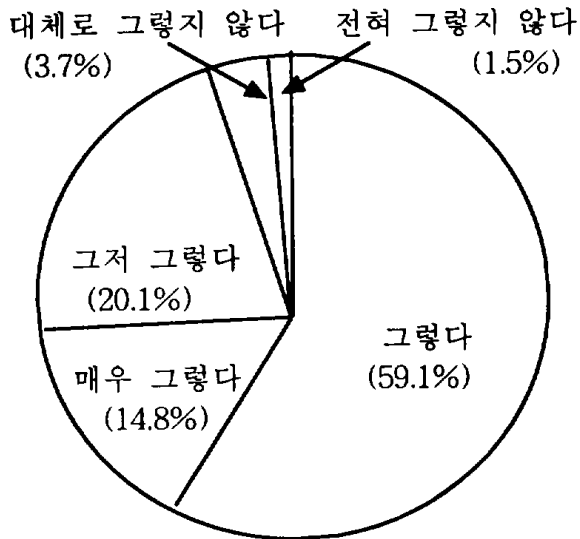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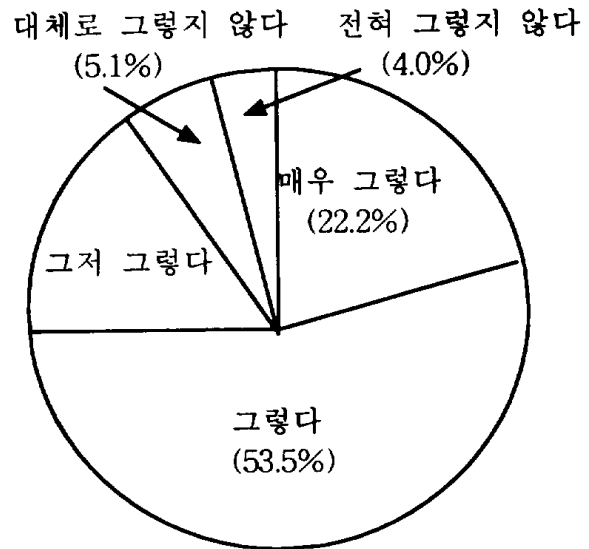


도표 6. 분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한다



⑥ 분장의 수정 요구

연출자와 연기자에게만 질의한 “분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79%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 9%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는 분장이 연기에 상당한 비중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연출가나 연기자 모두가 분장을 자신의 역할에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된다.

⑦ 분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TV 드라마 제작진 중에서 “상대방과 분장에 대해 의논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연출자 50%, 연기자 82%, 분장사 79%였다. 연기자와 분장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연출자와 분장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출가 중 34%는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연기자 10%, 분장사 8% 등 전체 17%의 부정적인 입장에 비해 월등히 비율이 높다.

이는 한국방송개발원이 1993년에 조사⁷⁶⁾한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이 조사에서 연출가들 중 24%가 방송 제작 과정에서 '가장 비협조적인 인력'으로 기술의 46%, 행정의 38% 다음으로 미술분야 인력을 꼽았다. 나머지 분야는 간부 9%, 편성요원 9%, 출연자 5%, 심의실 4%, 작가·스크립터 2%, 리포터·아나운서·MC 1%, 제작팀 1%, 기타 3%였다.⁷⁷⁾ 이는 드라마 외의 분야까지 포함한 것이지만, 우수한 드라마 제작을 위한 드라마 제작진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도표 7. 상대와 분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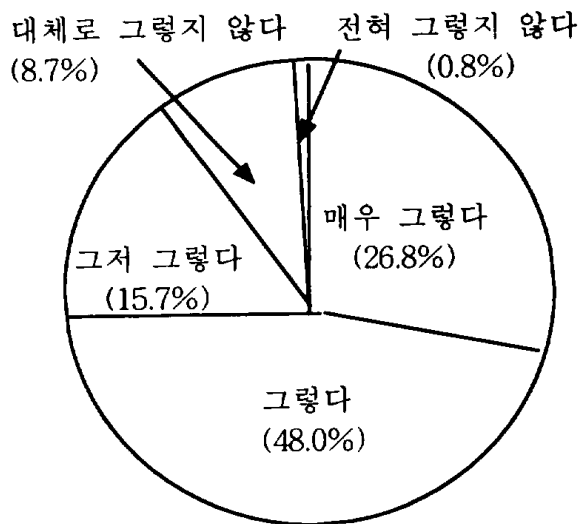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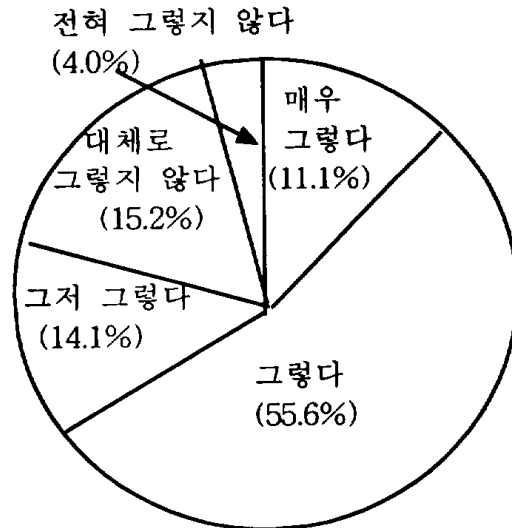


도표 8. 분장은 분장사에게 전임시켜야 한다



76) 전국 방송사 PD 및 간부 299명을 대상으로 '방송 제작 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라는 제하로 조사.

77) 한국방송개발원, 방송 제작 과정의 분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1993, P99.

⑧ 분장사에게 분장 일임

TV 드라마 제작진은 “분장은 분장사에게 전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1%, ‘그렇다’ 56% 등 67%가 ‘그렇다’고 답해 비교적 분장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 반면에 부정적인 대답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15%, ‘전혀 그렇지 않다’ 4% 등 19%에 불과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답한 사람이 12%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분장이 전문가의 영역이긴 하지만, 특성상 연출자·연기자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감안하면 연출가나 연기가 분장사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⑨ 분장의 이미지 손상

연출가·연기자는 “분장이 연기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29%, ‘그렇다’ 27% 등 56%가 그렇다고 답했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 15%, ‘전혀 그렇지 않다’ 15% 등 3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연기자의 경우 58%가 자신들의 이미지가 손상되면서까지 분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28%는 분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어도 좋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도 연기자 중 88%는 자신의 이미지와 관계없이 배역 성격에 충실한 분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연기자는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극중 캐릭터가 제대로 발휘되는 분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출가의 입장도 이와 비슷했다. 연출가의 50%는 연기자의 이미지 손상의 분장을 반대하면서도 67%는 배역 성격에 맞는 성격 분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도표 9. 분장이 연기자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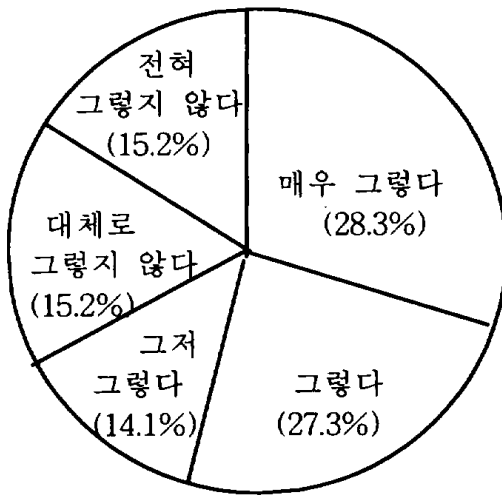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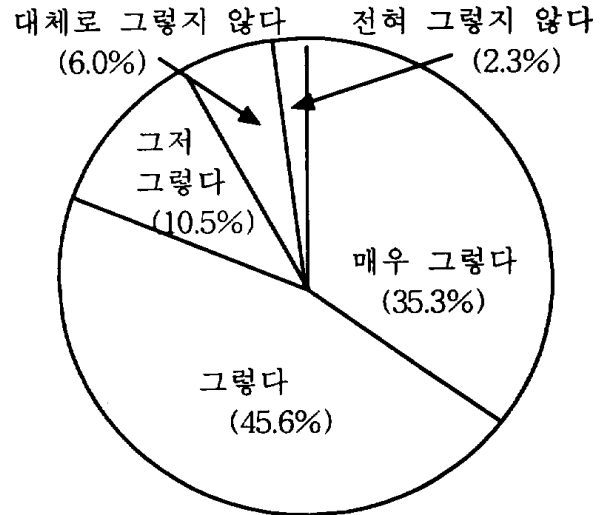


도표 10. 분장은 연기자의 이미지에
관계없이 배역의 성격에 충실해야 한다



⑩ 분장의 배역 성격에 대한 충실성

“성격 분장은 연기자 이미지에 관계없이 배역의 성격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TV 드라마 제작자들은 ‘매우 그렇다’ 35%, ‘그렇다’ 46% 등 대다수인 82%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부정은 6%이었다. 특히, 분장 대상인 연기자는 88%가 성격 분장을 위해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어도 좋다고 응답했고, 5%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연기자의 절반 이상인 56%는 실제 분장에 있어서의 이미지 손상을 꺼려했다.

⑪ 분장 시간의 충분성

TV 드라마 제작진은 “분장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3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그렇다’는 응답의 27%보다 비율이 높은 것이다. ‘그저 그렇다’는 대답도 30%나 되었다. 제작진 가운데 분장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연출가가 76.5%로 가장 높았고, 분장사

44.%, 연기자 25.9%% 순이었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연기자가 46.3%로 가장 많았고, 분장사 16.7%, 연출가 0.6% 순이었다. '그저 그렇다'는 연출가 22.2%, 분장사 38.9%, 연기자 28.4%이었다.

연출가는 다른 설문에서도 '매우 부족' 20%, '부족한 편' 49% 등 69%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간의 부족⁷⁸⁾을 지적한 바 있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간의 전반적인 증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인 47%의 연기자들이 분장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한 것은 의외이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67%의 연기자가 현재의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도표 11. 현재의 분장 시간이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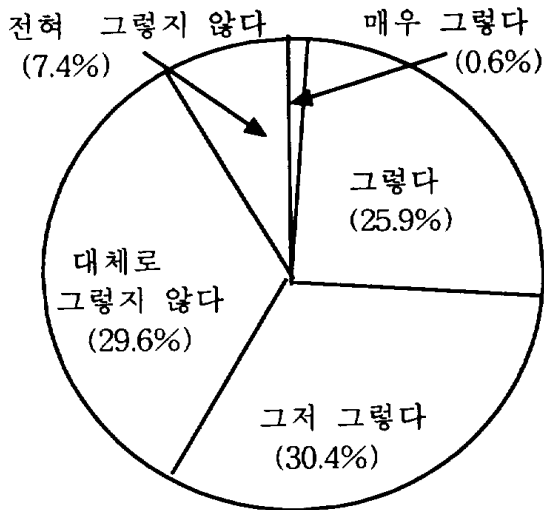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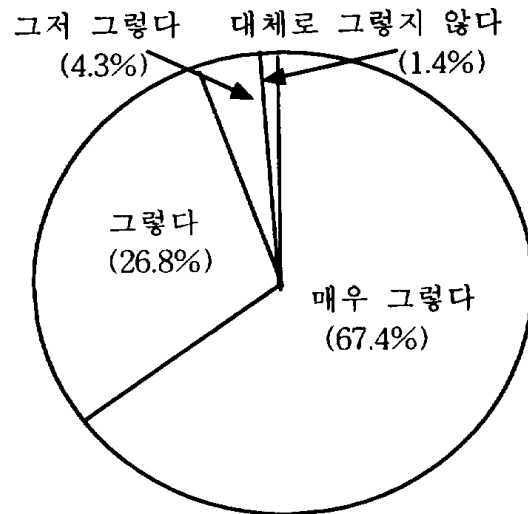


도표 12. 분장 발전에 드라마 사전
제작이 필요하다



⑫ 드라 사전 제작의 필요성

TV 드라마 제작진들은 “분장 발전에 사전 제작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84%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6%가 답했으며, “드라마의 사전

⁷⁸⁾ 충분한 편 9.8%, 매우 충분 0.7%, 그저 그렇다 24.0%

제작이 분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92%가 긍정했고, 부정은 2%가 하였다. 이는 드라마 및 성격 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드라마의 사전 제작이 불가피함을 역설한 것으로 이해된다.

⑬ 분장사들의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대한 인식

TV 드라마 성격 분장사들은 현재의 분장 수준에 대해 ‘매우 만족’ 11%, ‘만족’ 27% 등 38%가 만족했다. 그러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41.1%였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대체로 불만족’ 18%, ‘매우 불만족’ 3% 등 21%나 된 점, 특히 65%가 ‘보통’이라고 평가했으며 11%의 만족보다 13%나 더 불만족을 표시한 연출가들의 반응은 우리 나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사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분장사들은 대부분인 89%가 성격 분장이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20대는 전부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대 분장사 모두가 체계적으로 분장 교육을 받은 결과에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분장사들은 80%가 체계적으로 분장 교육을 받았다고 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11%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40대 이상의 분장사는 절반 가량이 체계적으로 분장 교육을 받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갈수록 분장 교육 환경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출자의 의도에 맞춰 분장하느냐”는 질문에는 분장사의 34% 즉, 20·30대의 32%, 40·50대의 30%는 그렇다고 답했고, 28%, 즉 20·30대의 29%, 40·50대의 29%는 부정적이었다.

연출자나 연기자와 상의해 분장하느냐는 질문에는 80%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8%였다. 이는 연기자의 긍정적인 응답인 81%, 부정인 1%와는 비슷했으나, 연출자의 반응 즉, 긍정 50%, 부정 17%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분장사들과 연출자간의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분장사들은 “극본과 배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장에 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7%가 ‘그렇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다’가 3%였다. 이는 연출가·연기자가 분장이 ‘계획적’이라는 평가인 52%, ‘비계획적’이다가 20%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연출자와 연기자의 요구가 더 많은 셈이다.

분장사들은 “연기자의 이미지에 관계없이 배역의 성격에 맞춰 분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가 52%였다. 이는 연출가·연기자의 56%가 연기자의 이미지에 관계없이 배역의 성격에 맞춰 분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분장사들은 “연출자·연기자가 분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9%, ‘그렇다’ 65% 등 7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5.8%에 불과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1%였다.

분장사 중 절반인 50%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했으며, 9%만이 만족하지 못했다.

분장사들은 분장 재료나 기법의 개발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인 88%가 희망했고, 30%는 별도로 분장을 공부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드라마 성격 분장 시간이 충분하느냐”는 물음에는 절반 가량인 44%가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3%, ‘그렇다’는 14%였다. 그리고 분장사 중 89%는 드라마 사전 제작이 드라마 발전에 위해 필요하며, 92%는 드라마 사전 제작이 성격 분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 둘 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 같은 응답은 연출자의 응답과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연출자 중 94%는 분장 시간이 부족하고, 89%는 드라마 사전 제작의 필요하고, 67%는 드라마 사전 제작이 분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연기자 중 47%는 현재의 분장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

았으나, 99%는 드라마의 사전 제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8%는 사전 제작이 분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TV 드라마 제작진들은 TV 드라마의 성격 분장을 위해서는 드라마의 사전 제작과 분장 시간의 증대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⑭ 시청자들의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대한 인식

TV 시청자들에게는 전문성이 배제된 질문을 했다. 6개의 5지선다형과 2개의 단답형 질문을 제시했다.

“TV 드라마를 볼 때 연기자의 어떤 면을 보느냐”는 질문에 시청자들 중 46%가 연기력을 꼽았다. 즉 극중 역할 20%, 외모가 10%, 모두다 24%였다. “연기자는 외모가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0%는 ‘그렇다’고 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멋지고 예쁜 연기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드라마 배역에 분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94%가 ‘그렇다’고 했으며, 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연기자의 분장을 의식하면서 시청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2%, ‘그렇다’ 48% 등 80%가 ‘그렇다’고 했으며, 2%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분장은 연기자의 본 이미지를 반영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1%, ‘그렇다’ 39% 등 51%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답은 24%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 3%, ‘높다’ 62% 등 65%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⑮ 성격 분장에 대한 평가

분장사가 고쳐야 할 점으로 연기자는 연구하는 자세, 배역에 대한 이해, 연기자와의 충분한 대화, 전문적 분장 개발 및 창조, 다양한 재료 및 기법 개발, 전문화 등을 꼽았다. 반면에 연출가는 연구 개발, 충분한 사전 제작, 사전 협의 및 작품 분석을 지적했으며, 분장사는 재료 및 기법 개발, 자질 향상, 다각적인 교육, 창조적 자세, 작품의 충분한 분석 및 이해를 들었다.

표 9. 드라마 제작진과 시청자의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대한 평가

대상 질문	잘 된 성격 분장	잘 안 된 성격 분장
연출가	- 사극 등장 인물 - 군인 - 병자	- 악인 - 노인 - 「세 남자 세 여자」의 전해진 - SF 어린이 드라마
연기자	- 뮤지컬 「캣츠」 - 한명희(이덕화 분) - 사극의 수염과 상투 - 현대의 코믹 캐릭터 - 「허준」의 이공기 대감 - 「전원일기」의 김 노인	- 사극에서의 눈썹 - 잠자는 장면의 짙은 분장 - 사극에서의 여자들 - 「허준」의 안광익 - 「왕건」의 왕건(최수종 분)
분장사	- 임격정 - 「여로」의 장옥제 분 - 「대왕대비」의 고두심 분 - 「아줌마」의 장진구 - 「여인천하」의 당추 - 노역 분장	- 「전원일기」의 김수미 - 「허준」의 조경환 분 - 노인 분장 - 「여인천하」의 방백일 - 피부(상처) 표현
시청자	- 「허준」의 임현식 분 - 「왕건」의 궁예(김영철 분) - 「왕건」의 왕건(최수종 분) - 「청춘의 덫」의 심은하 분 - 「가을 동화」의 은서(송혜교 분) - 「그녀가 눈뜰 때」의 김희선 분	- 「허준」의 황수정 분 - 「가을 동화」의 은서(송혜교 분) - 「순자」의 순자 - 「꿀뱅이」의 등장 인물 - 「맛있는 청혼」의 소유진 - 「토마토」의 김지영 분

대상 질문	적절한 성격 분장	미흡한 성격 분장
시청자	- 「모래시계」의 이정재 분 - 「아름다운 청춘」의 이병헌 분 - 「전원일기」의 김화장(최불암 분) - 「세 친구」의 정의정 분 - 「신귀공자」의 철가방들 - 「여인천하」의 정난정(강수연 분) - 「왕과 비」의 채시라 분 - 「모래시계」의 최민수 분 - 「모래시계」의 김인문 분 - 「용의 눈물」의 태종 - 「왕과 비」의 비룡비(최명길 분) - 「엄마야 누나야」의 장미희 분 - 「허미스터 큐」의 송윤아 분 - 「여인천하」의 갓바치 - 「허준」의 허준 - 「홍길동」의 김석훈 - 「전원일기」의 김혜자 분 - 「순풍산부인과」의 원장(오지명 분) - 「전원일기」의 김수미 분 - 「아름다운 날들」의 최지우 분 - 「해피 투게더」의 조재현 - 「백정의 딸」의 이정길 분 - 「여인천하」의 전인화 분 - 「순자」의 황승리	- 「왕건」의 견훤 역(서인석 분) - 「아름다운 시절」의 유시원 분 - 「여인천하」의 정난정(강수연 분) - 「신귀공자」의 최란 - 「육남매」의 장미희 분 - 「엄마야 누나야」의 장미희 - 「왕건」의 왕건(최수종 분) - 「임궏정」의 김원희 분 - 「허준」의 홍춘희 - 「아름다운 날들」의 이정현 분 - 「전원일기」의 복길 엄마 - 「왕건」의 젊은 장군들 - 「아름다운 날들」의 최지우 분 - 「세 친구」의 정웅인 분

앞의 도표에서 보듯 잘 된 성격 분장이 사극에 치우친 것은 분장 전문가의 손길이 많고 강한 배역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며, 잘못된 성격 분장이 대부분 현대극인 것은 연기자 스스로 배역에 맞지 않게 예쁘게 표현하려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격 분장에 대한 평가는 분장뿐만이 아니라 연기자의 연기와도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또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의한 개인 전담 분장사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 곱게 스트레이트 분장만을 선호한 까닭이라 생각된다.

2.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발전 방향

1)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제작 환경 개선

TV 드라마 성격 분장은 TV 드라마 제작 환경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TV 드라마 제작 현황을 먼저 점검한 뒤 성격 분장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우리 나라 TV 3사 드라마 프로그램은 대략 주당 35개 내외로 모두 90여 편이 제작, 방영되고 있다. 여기에다 재방송 드라마까지 합하면 거의 100여 편에 달하는 드라마가 매주 방송되고 있는 셈이다.⁷⁹⁾

“한 방송사가 한 주에 30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하다보니 일회적 소비를 위한 제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장르보다 많은 제작비를 사용하면서 한번 ‘쓰고 버리는’, 이러한 비경제적 생산·유통은 그에 합리적 소비 내역을 창출하고 또 그에 맞는 생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있어온 것이다. 우리 드라마에서 늘 거론되는 TV의 역기능-윤리의식의 부재, 저질 대사 등-과 수준 미달-낮은 완성도, 조악한 세트, 연기 훈련의 부재, 고증 미비 등-역시도 이러한 생산·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⁸⁰⁾

“드라마 제작비는 다른 장르의 제작비에 비하여 규모가 훨씬 큰 편이다. SBS TV의 경우, 편성부의 23억 7900만원 다음으로 많은 22억 8000만원이다. 제작비가 가장 적게 드는 5억 9800만원의 영화에 비해 4배나 많다. 그러나 이익률은 65%로 가장 높은 영화의 1/1650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 상업적 논리라면 당연히 퇴출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드라마를 폐지하지 않고

79) 김기태, ‘간이역’의 제작 체계 비평, MBC 드라마 일요가족극장 ‘간이역’, 한국방송비평회, 1997, P.26

80) 한국방송개발원, 앞의 책, P.3.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드라마가 시청률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시청률은 곧 광고 시장을 좌우하고, 시청률이 오르면 오를수록 방송국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광고 수익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드라마 제작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로서, 극본료·출연료·장소 사용료·조명·동시 녹음·음악·특수 촬영비 등이 해당된다. 간접비는 프로그램 제작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서, 경영·미술·기술 부문 경비와 건물관리비·감가상각비·본사 사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간접비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야 대략적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결산 종료 후 정확한 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데, MBC의 경우 대략 직접비의 약 2.5배를 간접비로 산정하고 있다.⁸¹⁾

현재 우리 나라 TV 드라마는 사전 제작되지 않고 대부분 시간적 급박함 속에서 제작된다. 이 같은 현실에서 KBS TV는 2000년 벽두에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기획과 사전제작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과 대본의 철저한 준비, 유능한 출연진과 연기자의 확보, 제작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과 사전제작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사전심의와 평가를 더욱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품질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⁸²⁾고 사전 제작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후의 제작 편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여 명의 연기자를 상대로 분장을 해왔으나 컬러 TV 시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야외 촬영으로 분장사의 업무 시간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배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극히 부족한 시간에 여

81) 김승수, 앞의 책, P.26.

82) KBS,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약속, 2000.

러 배역을 분장하다 보면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촬영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 이 같은 시간 부족은 설문 조사에도 나타나 있듯이 연출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같은 드라마 제작 시스템은 성격 분장의 문제와 직결된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간에 쫓겨 제작되는 드라마는 작품의 저질화는 물론 분장의 저질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다수의 드라마 제작진들은 드라마 제작의 충분한 시간과 사전 제작을 희망한다. 그것이 드라마 및 성격 분장 발전에 관건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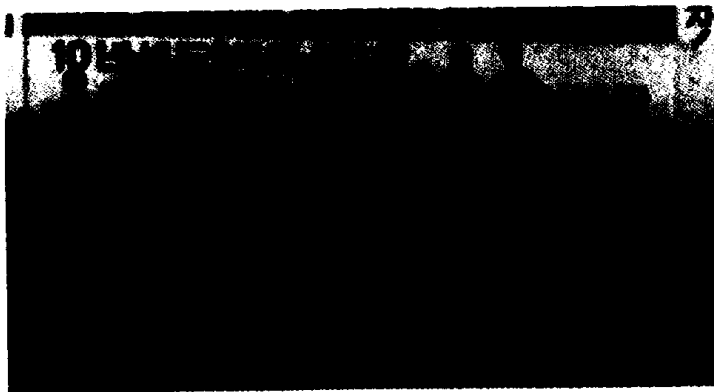


사진 92.

SBS '코리아게이트'.
20여명의 연기자를 2시간에 걸쳐 분장한 사례.



사진 93.

MBC '까레이스키'. 20대
연기자 10여 명을 노역으로 분장한 사례.

2) 매체 발전에 따른 분장 재료, 기법의 개발

TV 드라마 성격 분장의 4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국산 분장 재료가 없는 것도 문제다. 80년대 초에는 화장품 회사에 의뢰하여 분장 제품을 생산했으나, 시장이 좁고 제품의 질도 떨어져 조기에 생산을 중단했다. 현재도 많은 중소 기업체에서는 분장 재료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나, 영

세성으로 인하여 연구 투자가 저조하여 새로운 재료 개발이 미흡하다. 또 인체실험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이들 제품을 분장사들이 사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유학파들과 인터넷을 통한 외국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제품 또한 구매가 용이해져 갈수록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작아지고 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일선 분장사들과 제품 생산업체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 및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시대를 맞은 변화를 신속히 이루어낸다면 TV 분장도 괄목한 만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부 방송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은 TV 뿐만이 아니라 영화에서도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예로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 후편'을 디지털 카메라로 제작한 바 있고, 앞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상영으로 해적판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제작비 절감 및 수입의 극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⁸³⁾

이러한 디지털 TV는 화면의 선명도뿐만 아니라 대형화의 발달을 가져옴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식 방식보다 훨씬 더 섬세한 화면으로 인한 정밀한 분장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료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분장사는 디지털 카메라 및 TV에 대한 자료를 입수, 연구하여 분장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재료 및 기법을 발굴 및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분장술은 극단적인 사실성과 극단적 상징성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더 구체화되고 사실적인 표현 등도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⁸⁴⁾

83) 유승태와의 인터뷰, 2001. 4.

3) 전문가 육성 방안

분장사란 천의 얼굴을 만드는 사람이다. 분장사는 대본이나 시나리오에 맞는 인물을 창조해 낸다. 젊은 배우를 노년의 노인으로, 반대로 중년의 배우를 고등학생으로, 보통 사람을 저승사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분장의 힘이다. 그러나 배우들을 단순히 예쁘게 화장시키는 정도가 분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분장 학원을 찾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런 화장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다.

점점 영화나 방송의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분장에 쓰이는 도구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그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분장계의 현실은 그러한 영상 문화의 흐름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분장 교육은 후진적이다. 제대로 된 커리큘럼도 없이 상업주의적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성격 분장 교육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분장 관련 교육은 70여 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미용 관련 학과에서 지극히 미흡한 수준으로 교육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대경대학교 및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제대로 과목을 개설한 상태이고,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⁸⁵⁾에서 전공으로 두어 분장의 학문적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확장되는 분장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은 태부족한 상태이다. 심지어 3개월~6개월 코스의 학업 경력만 갖춘 일부 강사들이 사설 학원에서 분장 실기교육을 전담함으로써 올바른 분장 교육을 그

84) 고석만과의 인터뷰, 2001. 3.

85) 패션예술학과에 분장예술 전공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커리큘럼은 공통 필수 과목으로 칼라플래닝·패션 유행론이 있고, 전공 필수 과목으로 분장예술론이 있으며, 전공 선택 과목으로 무대분장과 조명·20세기영화 분장예술·특수분장·Art Make Up·성형에스테틱·메이크업 일러스트·헤어연출·성격분장 기법·전통사극 분장·무대분장 연구·화장품 마케팅·분장예술 세미나·분장 색채·Foot Care·인턴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르치고 있다. 이 같은 모순적 교육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수한 인력 양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분장 인력의 수적인 과잉으로 상업성에 편승한 TV 분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분장사들은 연구하는 것과 함께 연기자와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면 시청자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TV 드라마 발전과 함께 TV 드라마 성격 분장 또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 가능한 영역들을 적극 지원하여 보다 나은 TV 분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업적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설 학원 중심의 분장 인력 배출보다는 공교육을 통한 양질의 커리큘럼 개발과 탄탄한 강사진에 의한 실습과 이론의 균형 잡힌 공교육을 확충시키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학 및 예술대학원에서 분장 전공 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장사들과 분장 관련 업체간의 협업 체제가 구축됨으로서 산학협동 연구의 길을 증대시키는 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분장 기술 관련 국내외의 정보를 신속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분장 연구소를 비롯한 전문 연구 및 정보 교환 기구의 설립이 요청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분장의 질적 제고를 가져와 분장 영역의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 결과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 TV 드라마 성격 분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굴절되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사회적 인식 부족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각자들의 노력과 시청률 확장에 따른 드라마의 활성화에 힘입어 드라마 특성화에 한몫을 하는 주요 장르로 자리 매김 하였다.

둘째, 영상 매체 및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성격 분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편집 가능한 녹화기의 도입으로 녹화 방송이 이루어지면서 성격 분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고, 조명과 동시 녹음의 발달로 현장성과 극성을 더욱 극대화한 미니시리즈·특집의 성격 분장도 가능해졌다. 최근 등장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함께 SF물과 대형 드라마의 성격 분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분장사들은 신기술 메커니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TV 드라마의 성격 분장에 대한 제작자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앞으로의 과제로 연구 개발 및 연기자와의 상호 소통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리 민족과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일부 분장학원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장사 자격증 제도는 예술가이기를 저버리고 기능화된 인력을 양산함으로써 정형화된 성격 분장을 가져오는 폐단이 지적되었다. 특히 외국 유학 출신들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골상학 및 기법으로 국적 없는 성격 분장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의 가치관·관습·전통·문화를 제대로 반영한 성격 분장이야말로 문화 제국주의를 배격함은 물론 분장사 자신의 장인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다.

다섯째, 전문 인력 양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시장 창출이다. 시장 없는 전문 인력 양성은 실업자만을 양산할 뿐이며, 성격 분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날로 가속화되는 문화의 다양화·전문화·국제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영역의 성격 분장 개발과 교육, 새로운 성격 분장 시장의 창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래의 영상 환경에 대비해 영상 매체의 연구와 재료 및 기법의 개발, 다양화되는 드라마의 양상과 캐릭터 분석 및 기술 확립 등 미래 지향적 성격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케이블 TV에 이어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방송 매체의 등장으로 드라마의 영역도 다양화·전문화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방송은 지금까지 제작자 중심의 소통 방식이 아니라 제작자와 시청자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방식이어서 성격 분장도 시청자의 주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방송사와 시청자의 공동 주문 형태의 성격 분장에 대한 연구와 그 기법 개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두산세계백과」, 두산동아출판사,

「대세계백과사전 16. 예능」, 태극출판사, 1975,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1999,

김기태, ‘간이역’의 제작체계 비평, MBC 드라마 일요가족극장 ‘간이역’, 한국방송비평회, 1997,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답게, 1998,

김승수,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산업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김주현 · 최옥 공편, 「스탠더드 영한사전」, 성문각,

문화방송, 「문화방송 30년사」, 문화방송, 1992

SBS. 「SBS 창사 5년」, SBS서울방송, 1996.

박복만, “TV 드라마에 반영된 시대상과 장르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박수명 외, 「분장(공연예술총서 6)」, 198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박승배, “한국의 무대 공연에 나타난 분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대학 석사학위 논문, 1991,

방송문화연구회 편, 「영상시대의 방송 소프트웨어」, 한울 아카데미, 1996

방송문화진흥회 편 「한국방송총람」, 나남

신태섭, “TV 평, ‘사랑이 뭐길래’” 「말」 1992년 2월호.

아성, 「무대미술 입문」, 그루, 1983,

이강수, 「한국대중문화론」, 법문사, 1987,

최창섭, 「한국방송총론」, 서울 법문사

표재순, “텔레비전 드라마 편성의 시대적 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한국방송개발원, 「방송환경 변화와 TV 드라마의 대응」, 1994,

한국방송공사 편, 「한국방송 60년사」, 1996.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1983년도 국민생활 시간조사」, 1984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편, 「영상포럼」, 1990.12,

한진만, “한국 텔레비전 내용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2. 국외 문헌

다계우찌 도시오 편, 「미학 예술학 사전」, 미진사, 1989,

Richard Corson, Stage Make-up, Prentice-hill ink, Englewood cliffs, New

ersey, 1986, P.264.

Herman Buchman, Film and Television Make-up, Watson-Guptill, Publications/New York, Pitman Publishing/London, 1973, 1978.

Vincent J-R Kehoe, Professional Make-up Artist, Focal Press/Boston, London, 1985.

3. 인터뷰 자료

강대영, 분장사, 한국분장연구소(인간의 땅, KBS)

고두심, 연기자, 춤추는 가얏고(MBC) 덕이(SBS)

고석만, 연출가, 제1공화국(MBC) 코리아게이트(SBS)

김영섭, 연출가, 착한 남자(SBS)

김종학, 연출가, 여명의 눈동자(MBC) 모래시계(SBS)

박근형, 연기자, 형제의 강(SBS) 여명의 눈동자(MBC)

박수명, 분장사, 전 MBC 미술센터 상무

안호명, 분장사, MBC 분장실(제2,3공화국)

유승태, 분장사, MBC 분장실(동토의 왕국)

유인촌, 연기자, 새야 새야 파랑새야(MBC) 3김시대(SBS)

유재영, 분장사, MBC 분장실(여명의 눈동자)

이덕화, 연기자, 사랑과 야망(MBC) 한명희(KBS)

이병훈, 연출가, 조선왕조 시리즈(MBC) 허준(MBC)

이승남, 분장사, SBS 분장실(모래시계)

장우식, 분장사, SBS 아카데미 분장 교수

장인환, 분장사, 영화 및 초창기 TV 분장·출연

장형일, 연출가, 형제의 강(SBS) 덕이(SBS)

정완식, 분장사, SBS 분장실(임꺽정)

정혜선, 연기자, 까레이스키(MBC) 이웃집 여자(SBS)

최불암, 연기자, 제1공화국(MBC) 전원일기(MBC)

ABSTRACT

A Study of TV Drama and its Character Make-up in Korea

Kim, Bong-cheon

Major in Make-up Arts

Dept. of Fashion Arts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ansung University

Drama is often called as the flower of television, since a television drama attracts a far higher popularity rating than other television shows. The high popularity of TV drama comes from its features that it can well reflect our human conflicts through fictions.

A television drama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various exterior elements as it has faced changes from political and social sectors and its internal changes of broadcasting companies itself as well.

In the Yusin times, the period of the Revitalizing Reform, there were many dramas emphasizing the Government's strong intention on social and economic structural developments, and anti-Communism drive attitudes. From when the fifth Republic

was inaugurated, many dramas were focused on reforming social attitudes and on settling public sentiments. From around the end of 1980's , various topics and genres of dramas were emerged, while in the 1990's light and sensible dramas were largely in the limelight.

A drama is mainly characterized by its performers, dependent upon whose words and actions as dictated in the scenario, which reflects various lies of human through dramatic conflict.

Therefore the artistic effect of drama and the dramatic force are embodied through performers' characteristic performance.

Television audiences become either happy or saddened by the performers' performances. The performer is a professional specializing in performance as an occupation.

Differently from performers doing general programs like news, documentaries and shows, drama performers have to express well the characters' features as intended in the dramas. Therefore, dramas require performing skills of the performers to the extent as aimed at by authors and directors to efficiently deliver what is intended.

However, a good drama cannot be realized by the good performers alone. To get the best results from a drama, performers need to be supported by short pieces of works along with makeup

for the performers. This kind of makeup is called character makeup.

The character makeup has important characteristics that can be accomplished in expressing the particular times' situations and outward appearances that cannot be attained by performing skills alone. In this respect, the makeup is said it reveals the performer's living situations and feelings even without the support of the performer's performances. To that extent, a makeup plays its own functions of performances independently of supports of the performer's performances.

Summaries of the past and future of television drama character makeup are noted here; first, our television drama character makeup has a short history. In early 1960's, television broadcasting was first introduced to us, and makeup performances started as camera recordings came into being for its broadcasting services to the public.

In the beginning of television drama, makeup was put on not by the makeup specialists but by the performers themselves, and the level of makeup was very primitive.

While television has been spread into the real public lives, and various fields of dramas have been produced, the makeup field set out its foothold as a separate genre. Further, the more the makeup was promoted, the more society changed and the more specialists

in the makeup became produced.

The makeup arts courses are now available at both Teakyeong College (2-year courses) and Hansung University. Makeup educations are also available either at the Theatre Department or at Movie Department of Dongguk University and Chung-Ang University (4-year courses), and available at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like broadcasting academies and specialized academies.

Further to these special educational facilities, makeup specialists have vastly increased as the specialists learned overseas joined them in Korea. Nevertheless, many issues are needed to be still resolved in achieving makeup educations and activities.

These issues will be attributable to the facts that systematic studies have not been still backed up, and the specialists studied overseas tried to apply to the Orientals, whose facial configurations are not fit for the Western style makeup. It will be desirable to apply makeup after it belongs to one of the in-depth studies in our situations.

These days, the makeup sectors have been kept expanded continuously as image-related media and photographing technologies advanced, and the approaches to our social thinking changed as times passed by. That resulted in shortages in makeup specialists to accommodate the rapid increased makeup demands.

Faced with 21 century now, drama environments are rapidly changing with the emergence of the computers and digital TVs, and it is expected for makeup sector to change further as dramas are diversified, media areas are developed, and bi-directional communications are expanded.

Needlessly to say, more scientific and delicate makeup approaches will satisfy future drama environments, for which new elements and techniques relative to character makeup are needed. The screen should be able to illustrate completely fine lines. In this context, makeup techniques conforming to rapidly developing bi-directional communications systems should be studied and developed, and both systematic and specialized educations should be available to meet the diversified market needs, supported by professional makeup manpower also required to be trained.

「 부 록 」

설 문 지

다음은 「한국 TV 드라마의 성격 분장에 대한 연구」 논문 작성에 필요한 설문입니다. 읽어보시고 느끼신 대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설문은 본인의 연구 논문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 3.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패션예술학과 분장예술학전공

김 봉 천

다음 해당란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 성 별 | ① 남 () | ② 여 () |
| 2. 연 령 | ① 30세 이하 () | ② 31 ~ 40세 () |
| | ③ 41 ~ 50세 () | ④ 51세 이상 () |
| 3. 직 업 | ① 프로듀서 () | ② 연기자 () |
| 4. 경 력 | ① 1 ~ 5년 () | ② 6 ~ 10년 () |
| | ③ 11 ~ 15년 () | ④ 16 ~ 20년 () |
| | ⑤ 21년 이상 () | |

설문 응답 요령 : 아래 설문지를 읽으시고 각 문항마다 느끼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대한 설문(연기자 용)

번호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예	현재 맡고 있는 드라마가 마음에 든다?		V			
1	분장이 배역의 성격 표출에 도움이 된다?					
2	현재의 분장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3	분장인의 자질이 뛰어나다?					
4	분장인이 배역을 이해하고 분장한다?					
5	분장이 맘에 들지 않으면 고치거나 분장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한다?					
6	분장인과 분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7	분장은 전적으로 분장인에게 맡긴다?					
8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분장은 싫다?					
9	분장은 연기자의 이미지와 관계없이 배역 성격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10	현재 드라마 분장 시간은 충분하다?					
11	현재 분장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12	사전 제작은 드라마 발전에 필요하다?					
13	사전 제작은 분장 수준을 높일 것이다?					

※아래의 문항은 짧게 응답해 주세요

14	성격 분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15	분장인이 고쳐야 할 점은?	
16	분장인에게 바라는 점은?	
17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 중 가장 분장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되는 등장 인물은?	
18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 중 가장 분장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등장 인물은?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대한 설문(프로듀서 용)

번호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예	현재 맡고 있는 드라마가 마음에 든다?		v			
1	분장이 배역 성격 표출에 도움이 된다?					
2	현재의 분장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3	분장인의 자질이 뛰어나다?					
4	분장인이 배역을 이해하고 분장한다?					
5	분장이 맘에 들지 않으면 고치거나 분장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한다?					
6	분장인과 분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7	분장은 전적으로 분장인에게 맡긴다?					
8	연기자 즉 자연인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분장은 싫다?					
9	분장은 연기자의 이미지와 관계없이 배역 성격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10	현재 드라마 분장 시간은 충분하다?					
11	현재 분장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2	사전 제작은 드라마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13	사전 제작은 분장 수준을 높일 것이다?					

※아래의 문항은 짧게 응답해 주세요

14	성격 분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15	분장인이 고쳐야 할 점은?	
16	분장인에게 바라는 점은?	
17	지금까지 연출한 작품 중 가장 분장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되는 등장 인물은?	
18	지금까지 연출한 작품 중 가장 분장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등장 인물은?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대한 설문(분장인 용)

번호	항 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예	현재 맡고 있는 드라마가 마음에 든다?		√			
1	분장이 배역의 성격 표출을 돕는다?					
2	현재의 분장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3	분장은 분장인의 창작 활동이다?					
4	분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다?					
5	연출자 의도에 맞춰 분장한다?					
6	연출자, 출연자와 상의해 분장한다?					
7	극본·배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장한다?					
8	연기자의 본래 이미지와 관계없이 배역 성격에만 맞춰 분장한다?					
9	연출자, 연기가 분장을 이해, 협력한다?					
10	분장 직업에 만족한다?					
	불만이라면, 그 이유는?					
11	분장 재료나 기법을 개발하고 싶다?					
12	분장에 대해 별도로 공부하고 있다?					
13	현재 드라마 분장의 시간은 충분하다?					
14	사전 제작은 드라마 발전에 필요하다?					
15	사전 제작은 분장 수준을 높일 것이다?					

※아래의 문항은 짧게 응답해 주세요

16	성격 분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17	분장인이 고쳐야 할 점은?	
18	연출자에게 바라는 점은?	
19	연기인에게 바라는 점은?	
20	지금까지 한 분장 중 가장 분장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등장 인물은?	
21	지금까지 한 분장 중 가장 분장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되는 등장 인물은?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TV 드라마 성격 분장에 대한 설문(시청자 용)

아래의 문항을 잘 읽고, 생각되는 번호의 괄호 안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귀하의 연령은? ①30세미만() ② 31~40세() ③41~50세() ④51세이상()

1. 드라마를 볼 때 연기자의 어떤 면을 보는가?

①외모() ②연기력() ③극중 역할() ④모두()

2. 연기자는 외모가 뛰어나야(예쁘거나 잘 생기거나) 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3. 드라마에 있어서 연기자의 성격 분장이 필요하다?

①절대 필요하다() ②조금 필요하다() ③그저 그렇다()
④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⑤전혀 필요하지 않다()

4. 드라마를 볼 때 연기자의 분장을 의식한다(궁금하다)?

①늘 의식한다() ②가끔 의식한다() ③그저 그렇다() ④대체로 의식하지 않는다
⑤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5. 드라마 배역의 분장은 연기자의 본래 모습을 반영해야 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6. 드라마의 연기자 성격 분장 수준을 평가한다면?

①매우 좋다() ②좋다() ③그저 그렇다() ④나쁘다() ⑤매우 나쁘다()

7. 가장 분장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등장 인물은?

①배역 이름() : 드라마 이름()

8. 가장 분장이 안되었다고 생각되는 등장 인물은?

①배역 이름() : 드라마 이름()

※ 수고하셨습니다. 드라마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